최종보고서
2019-08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연구

조정윤 송낙현
이재준 정유성

연구기관 / (사)국제고용개발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70th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s Accession to UNESCO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연구

(최종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구수행기관 : (사)국제고용개발원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조정윤 박사(국제고용개발원)

공동연구원 : 송낙현 교육연구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재준 객원 연구원(국제고용개발원)

정유성 연구원(국제고용개발원)

차 례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5
3. 연구방법 ····· 6

제2장 개도국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 8

1. 개요 ····· 8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분야 ODA ····· 9
3. 개발도상국 청소년 직업교육의 인식과 환경 ····· 13
4. 인적자본의 형성과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직업교육 ····· 19
5.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 ····· 23
6. 신남방 정책과 협력여건 ····· 27
7. 소결 ····· 29

제3장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 32

1. 개요 ····· 32
2. 국내사례 조사·분석을 위한 면담 ····· 33
3. 해외사례 조사·분석 ····· 47
4. 소결 ····· 53

제4장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 57

1. 개요 ····· 57
2. 적절성(Relevance) ····· 58
3. 효과성(Effectiveness) ····· 61
4. 효율성(Efficiency) ····· 63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65
6. 영향력(Impact) ····· 66
7.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우리 측 지원 타당성 분석 종합 ····· 68
8. 소결 ····· 71

제5장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 73

1. 추진 방향 ····· 73
2. 추진 전략 ····· 78

제6장 요약 및 제언 ····· 82

1. 요약 ····· 82
2. 제언 ····· 87

참고문헌 ····· 91

부록 1. 면담 조사지 ····· 97
부록 2. 상세 면담내용 ····· 117
부록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팔 교육부 차관 등 면담 주요 내용 ·· 129
부록 4. 개도국학생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안) 타당성조사결과 ·· 130
부록 5.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연구 발표자료 ··· 153

<표 차례>

<표 2-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수요조사 결과 (2018) ····· 17
<표 2-2> 신남방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 29
<표 3-1> 면담 대상자별 주요 질문 요지 ····· 33
<표 4-1> OECD DAC에 기반한 우리 지원 타당성 분석내용 종합 ····· 68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방향

○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을 고찰하고 ODA 사업으로 형성하여 시행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헌분석, 전문가 협의, 면담 조사를 실시

-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처해있는 상황을 이해
-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중등 직업교육 비교우위 및 지원여건을 파악하여 우리 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 요구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선행연구 조사 분석 결과

□ 중등 직업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본 연구주제는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SDGs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

- 세부목표 '4.1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 제공', '4.3의 기술·직업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 '4.4의 취업·양질의 일자리·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및 성인의 수 증대'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짐

○ 유네스코(2016)의 경우 SDG 이행을 위해 2016~2021년 TVET 중기 전략을 수립하여 전 세계 TVET 체계의 상관성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성인

이 고용·창업·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1) 청소년 고용과 창업 육성, 2) 공정과 양성평등의 촉진, 3)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중등직업훈련 공적 원조

○ OECD DAC 회원국의 중등직업교육 지원금액 총 규모는 854백만불(2016년 기준) 규모이며,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의 공적개발원조(ODA)는 16백만불 규모로 유상과 무상원조의 양자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 공적개발원조가 실행되었음(장지순 외, 2018)

- 우리나라는 24개 중점 협력국을 설정하고 그중 14개 국가에 TVET을 포함한 교육을 중점협력 분야로 포함하여 공적 원조를 이행하고 있음(이남철 외, 2016)

- KOICA 분야별 중기 전략(2016~2020)에 따르면 직업교육(TVET)이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43.8% (고등교육 30.6%, 기초교육 25.6%)를 차지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TVET)이 우리나라 공적원조 분야에서 갖는 위상을 알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직업교육훈련 여건

○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산업발전과 빈곤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자본 개발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은 숙련 기술인력으로 성장하여 적정한 소득을 약속하는 고용을 확신하기 어려움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은 일반 중등 교육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Alhasan and Tyabo, 2013), 중등 직업교육 여건과 졸업 후 진로는 중등학생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Ai, 2015)

- 개도국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여건과 관련한 첫 번째로 문제로 교사의 역량이 식별됨.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교육 장비 및 시설을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능력을 갱신하는 교사 재교육 제도 및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임(Thongsavath, 2014)

- 직업교육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한적인 예산 또한 개발도상국 청소년 직업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청소년 직업훈련 시설은 교육 당국으로부터 할당받은 부족한 예산으로 필수 설비 및 기자재를 구매할 수 없으며 충분한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임(Wahba, 2010)

-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체와 협력이 결여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교육 제공에 어려움 상존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해외 장학 사례

○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장학 정책의 실행은 기존 자국 내 인적자본 개발과는 다른 효용이 발생됨(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해외 유수 교육훈련기관의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만족 시켰을 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전달을 촉진하고 자국민의 국제적 시각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둠(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카자흐스탄 해외 장학사업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외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산업계에 진출한 인적자원이 자국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되는 등, 세계화된 경제·산업 하에서 기존의 기술인력에 요구되는 능력과 재능이 변화함(Perna, Orosz, Jumakulov, 2015)

□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

○ 시장과 인적자원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화적 특성에 따라,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지와 대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됨(Barrel, Teal, Gloet, 2005)

-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통합과 변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과 직업교육 문제에 대해 개도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됨(Kingombe, 2011)

-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시장과 기업이 광범위하고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현대에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시장의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하였음(Kristensen, 1998)

- 이러한 능력은 물리적인 이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국에 들어온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통신을 활용하여 국경을 넘지 않고도 발생함(Kristensen, 1998)

- 젊은 층에 주목해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달기 청소년은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험을 흡수하고 그들의 개인능력을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데 탁월하기 때문임(Kristensen, 1998)

□ 우리의 정책 지원여건

○ 기존 아세안 협력기금의 규모를 200% 확대하고(1400만 불) 한-메콩 기금도 300% 규모로(300만불)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강명구, 2018)

○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1)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 협력기반 구축, 3)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 상기 목표 중 사람(People) 주제의 추진 목표 3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신남방 지역 장학생 지원사업 및 대학생 초청 연수,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확대 등을 명시(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하고 있어 본 연구주제인 개발도상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과 접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3.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이행기관의 경험을 통한 교훈

○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대한 경험을 20년간 축적해 왔으며 동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

-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 능력,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초학력임

- 즉, 한국에서 개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장학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2가지 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학생 선발이 가장 중요함

- 현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목표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목적과는 격차가 있는 상황

- 따라서,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초청 장학생 선발 당시부터 직업교육의 목적에 맞게 경력개발 경로에 관심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 필요

-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성화고의 운영 취지에 부합

- 향후 진로 개발과 경로 선택에 충분한 안내 및 지도가 필요

□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이행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의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등직업교육 단계의 국제협력 활동 및 ODA 사업에 있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이미 수립·추진 중임. 한편, 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 협력형태로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구축된 국내 직업교육 인프라와 시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학생초청 ODA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매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모멘텀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DB와의 협력을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시행을 구상 중이고 국제기구의 경험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본 연구주제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

-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국제협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는 그간 EAS(East Asian Summit)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추진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

- 향후 교육부를 주축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개도국 협력은 확대·심화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개도국 수원기관에서는 선진국 TVET 체계를 직접 경험하며 학습과 근무경험을 쌓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개도국 중등학생 초청 방식의 ODA직업교육사업이 개도국의 요구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해외 장학사업 사례와 TVET 연수생(학생) 유치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주제인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 카자흐스탄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은 변화된 시장질서에 따라 기존 교육 인프라의 조속한 전환이 어려워 자국민 해외유학 지원을 통해 인적자본을 구축한 사례임. 개도국의 해외 인적자본 형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의 본 연구 관점과 일치

○ 영국 PMI2 정책의 시행을 통해 영국 TVET 교육기관은 국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시장경제적 접근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함. 영국의 발전된 TVET 시스템이 인적자본역량 개발에 효과적임을 인식하여 개도국 및 주변국의 영국에 대한 유학 증가를 모색

-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으로 고려되는 직업교육의 ‘유료화 및 브랜드화’를 위한 사례관점에서 의미가 있음.

4.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ODA 지원 5대 기준에 따른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이 설정한 ODA 지원 5대 기준 ①적절성, ②효과성, ③효율성, ④지속가능성, ⑤영향에 따른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을 고찰

○ 적절성: 산업인력의 부족과 인력 양성이 시급한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발달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은 타당하며, 개도국의 열악한 직업교육 여건을 이미 구축되어있는 우리의 시설과 인적역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효과성: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은 선진 기술인력을 보

유하고 한국기업과 연계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예측되며, 장학생의 강화된 직무수행역량을 통해 자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직업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효율성: 개도국 현지 TVET 기관의 설립 운영을 통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 개도국 학생을 초청하여 양질의 직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우리 (기 구축된) 중등직업교육 인프라를 사용하면 투자금액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청소년의 학업 및 생활 관리는 성인 초청장학생에 비해 많은 관리 수요가 발생함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지속가능성: 우리나라의 중등단계 유휴 직업교육 시설과 교사 등을 활용하고 신남방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개도국 학생의 유치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동 사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속적 동의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상기 국내 도전을 고려할 때,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특성화고의 비교우위를 강화함으로써 개도국 유학생에 대한 유상교육(등록금 징수) 실시 및 유학사업 형태로의 장기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영향력: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5.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 추진 방향

○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SDG 4에 잘 부합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방향과 전략, 내용, 방법의 제시가 필요

○ 한국 정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무상 ODA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현재 신남방, 신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 ODA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는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동 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 대화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본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①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②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기초학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③ 기능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경력개발경로를 계획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직업교육 관련 담당부처, 개도국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개도국진출 한국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 네크워크 구축 운영이 필요

○ 한국 중등직업교육 이수 후 자국으로 귀국한 학생이 자국 내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는 동시에 동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프로그램 마련 필요

○ 중장기적 협력 관점에서 장학생이 유학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게 한 후 한국의 공과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선취업-후진학)을 통해 지속적인 경력 경로를 개발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교량(key player) 역할을 부여

□ 추진 전략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교육부, 교육청 및 동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협력 플랫폼 형성 필요

○ 교육청, 교육부 등이 추진하려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적 변수(필요성 관점)를 반영하여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활용하고, 유사 사업간 차별화를 통해서 동 사업 타당성을 부각

○ 유네스코의 전 세계적인 플랫폼, 예들 들어 I-hub 등과 같이 개도국 지역거점 TVET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책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HQs는 물론 유네스코 지역(방콕)사무소 및 국가사무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국 정부와 지원 가능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추진 계획과 내용 등을 마련

6.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시행한 타당성 분석결과 적절성과 효과성은 매우 높은 반면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성은 중간정도로 파악되어 영향력,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북방 교포자녀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된 선행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동 사업의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년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준비하는 사업과 차별성을 유지

□ 유네스코 기술적·재원적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 등 유네스코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사업 추진환경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추진여건을 조성한다면 이상적임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유엔총회에서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으며 동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포괄하고 있음

○ Goal 4(양질의 교육)에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세부목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양질의 제공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림
- 세부목표 4.b: 2020년까지 선진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과 정보통신기술,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과학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 등록을 위하여 최빈국, 작은 도서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도상국에 이용가능한 장학금 수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

○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용가능한 장학금 수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세부목표 4.b는 본 연구 주제인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이 내포하는 1) 대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실시, 2) 최

빈국 및 아프리카 개도국 학생 장학지원은 유엔이 발표한 SDGs에 매우 부합

□ KOICA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재원 배분을 볼 때 KOICA 사업비 전체 중 교육 분야에 27.1%가 투자되고 있어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이 보건의료분야로 22.8%에 달하고 있음(KOICA, 2018)

○ 2018년도 KOICA의 국별 프로그램 내 분야별 지원 역시 교육부문이 27.1%로 가장 높고 보건의료가 22.8%를 차지하고 있음(KOICA, 2018)

○ 상기 결과는 UN의 SDGs 및 개도국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우리나라 비교우위를 반영한 5대 중점분야(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를 채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 가능

□ 특히, KOICA의 교육 분야 지원전략을 보면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3대 전략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KOICA, 2015)

○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에 따르면 전체 교육 분야 예산 중 TVET에 43.8%, 고등교육에 30.6%, 기초교육에 25.6%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TVET이 KOICA의 교육 분야 OD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맥락에서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KOICA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ODA 사업추진 방향과 매우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UNESCO와 World Bank에서도 TVET 분야에 대한 대 개도국 지원 사업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과도 일맥상통함(King & McGrath, 2012)

- King & McGrath(2012)는 시장 자율체제 속에서 개도국 청년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한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TVET이 다시 한번 UNESCO와 개도국의 중요한 교육의제로 부상되고 있음을 지적

□ 우리나라 ODA 사업의 주요 협력국가에는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향후 우리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통한 현지 비즈니스 추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우리기업이 개도국에서 해당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비지니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지인 출신 숙련인력(skilled worker)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숙련된 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다수의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은 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 ② 회사 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현지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현지 인력의 확보를 개도국 비즈니스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신남방·신북방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개도국 학생 대상 ODA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은 국내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개도국 엘리트 숙련인력(skilled worker)을 양성·배출하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한다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즉, 이 사업이 개도국 중등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ODA 사업임을 감안하여 성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한국진출 기업에 취업하는 개도국 현지 취업 프로그램[1]과 연계운영 가능성 모색

- 상기 방안이 가능하다면, 한국 ODA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통해 동 ODA 사업의 직업교육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 개도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도국 현지출신 skilled worker를 양성·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해서 이 인력을 양성한 후, 개도국 현지임금을 고려한 적정한 현지임금 수준에서 한국에서 유학한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국 유학과 개도국 현지 한국기업 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을 의미함

- 우리 ODA 장학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출신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취업하여 개도국 현지기업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
- 동시에, 일정기간 기업의 실무에 종사하며 직업교육을 통해 함양된 역량을 기업현장의 맥락에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숙련된 기술자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① UN의 SDGs가 양질의 일자리와 평생학습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② KOICA의 교육 분야 ODA 사업추진 방향과 내용이 TVE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③ 개도국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엘리트 숙련인력(skilled worker) 채용에 대한 가능성을 감안할 때 대 개도국 중등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 이상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구목적: 개도국 대상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동 사업을 ODA 사업으로 형성하여 시행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세부 연구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의 개도국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둘째, 국내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 셋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타당성 분석
- 넷째, 동 사업의 타당성에 기반한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마련

2. 연구 내용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직업교육 ODA 시행 현황 조사·분석

○ 최근 국내 직업교육 ODA 사업추진 트렌드

○ 중등단계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ODA 사례 분석

□ 둘째,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사례 분석

○ 서울시 K공업고교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 교육부 사례

○ 해외사례(카자흐스탄 Bolashak 프로그램 및 영국 PMI2 사례)

□ 셋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 적절성

○ 효과성

○ 효율성

○ 지속가능성

○ 영향력

□ 넷째,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 추진 방향

○ 추진 전략

□ 다섯째, 요약 및 제언

○ 요약

○ 제언

3. 연구방법

□ 문헌분석

○ 국내외 TVET 관련 ODA 시행 현황 조사·분석

○ 국내외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ODA 시행 현황 조사·분석

○ 서울시 K공업고교가 시행하고 있는 중등단계 개도국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추진현황,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 등 조사·분석

○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 ODA 주무기관(KOICA) 등 국내 중등단계 직업교육훈련 관련 유사 ODA 시행 관련 기관의 추진사례 조사·분석

□ 직업교육 ODA 전문가 의견수렴

○ 국내외 중등단계 직업교육훈련 ODA 시행 방향, 내용, 전략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직업교육훈련, 노동시장, ODA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 면담조사

○ 서울특별시 K공업고교 개도국 장학사업 담당 부서 교사와 개도국 유학생 : 개도국 유학생을 관리하는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개도국 학생 대상 직업교육 사업 추진현황, 그간의 성과, 개선방안, 애로사항 등 파악. 개도국 유학생 대상으로 K공고에서 학습 등 유학 생활 전반과 취업, 대학진학 등 향후 진로개발에 대한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도국 학생 장학사업 담당부서 관계자 : 서울시가 지원하는 K공업고교 개도국 학생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 사업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관계자 의견수렴.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1)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대상 국제화 관련 사업, 2)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을 통한 개도국 중등단계 학생 장학사업 등에 대한 추진현황 파악 및 의견교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특성화고 ODA 장학사업 관계자 :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ODA 사업에 대한 교육부 사업추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 담당자와 교육부의 사업추진 방향, 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고 동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한국 ODA 주무 기관(KOICA)의 개도국 학생연수 관련 부서 담당자: 중등단계 직업교육 분야 ODA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한국 ODA 주무 기관의 의견수렴

제2장 ▌개도국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1. 개요

□ 본 장에서는 중등 직업교육이 개발도상국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국제사회 노력과 현재 개도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조명함으로써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배경과 함의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

○ UN 새천년 목표를 계승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 개발정책과 협력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규범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동 목표하에서 정의하고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 조사·분석

○ 개발도상국에서 청소년 직업교육이 갖는 인식과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개도국의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분석

○ 직업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장학사례 조사·분석

○ 전 지구적 동향인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관련내용 조사·분석

○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방향과 협력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시행여건을 조사·분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분야 ODA

□ 지속가능발전목표

○ UN 새천년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통해 전례 없는 빈곤 종식과 세계평화에 대한 전 세계적 협력 및 자원의 동원이 있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음(United Nations 2015)

- 절대 빈곤율이 47%에서 14%로 감소하였고, 초등학교 등록률은 91%를 달성함

- 영아 1000명당 사망률은 90명에서 43명으로 감소하고 모성 사망률은 45%가 감소(United Nations, 2015)

○ 하지만, 다수의 MDGs 기초선이 1990년이라는 점, MDGs 이전부터 이행되어온 노력의 결과가 발현되었다는 점, 목표의 성과 측정이 양적(Quantitative)으로 편중되어 현상에 대한 해석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예: 등록률과 이탈률이 똑같이 높다는 점)(Global 2030, 2016) 등의 한계와 비판이 상존

○ MDGs를 계승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설정을 통해 MDGs가 달성하지 못한 '빈곤 종식과 인류의 평화·번영,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현' 하는데 더욱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지속가능발전목표, 2016)

- SDGs의 17개 목표 각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으며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지속가능발전목표, 2016)

○ 본 연구 주제인 '중등직업교육' 에 한정해 SDGs 17개 목표를 고찰해 보자면, 4번 목표인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의 세부목표 '4.1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 제공', '4.3의 고등 기술·직업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 '4.4 취업·양질의 일자리·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및 성인의 수 증대'

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짐

○ 앞서 언급한 4번의 목표는 SDGs 8번 목표인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일자리 증진’의 선결 과제인 동시에 대상이 됨

- 즉, 세부목표 ‘8.1 최빈국 경제성장률 7% 유지’, ‘8.3 생산 활동·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업가 정신 및 혁신 고취를 통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 ‘8.5 청년과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8.6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업상태의 청년 비율 감축’은 SDGs 4번 세부목표 이행의 결과가 구현되거나 결과를 영향(Impact)으로 발전시키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4번과 8번의 통합적 결과는 SDGs 1. 빈곤 종식, 2. 기아 근절의 토대를 마련할 뿐 아니라 다른 13개 목표의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공헌함

□ 유네스코(2016)의 경우 SDG 이행을 위해 2016~2021년 TVET 중기전략을 수립하여 전 세계 TVET 체계의 상관성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성인이 고용, 창업,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실천 목표를 설정함

1) 청소년 고용과 창업 육성

○ 전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 TVET 사업들에 대해 증거 중심적이고 영향 중심적인 자문 제공

- 국가적 차원: TVET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지원하고 국가 TVET 정책 결정자 및 이행기관의 역량을 강화

- 지역적 차원: 지역 TVET 의제 설정과 지역(동료) 학습을 통한 지식 공유 촉진

- 글로벌 차원: TVET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다자사업의 이행 지원

2) 공정과 양성평등의 촉진

○ 기존 직업교육 구조에서 기인한 평등 문제와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각 회원국들이 TVET을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외계층을 위한 TVET 정책 추진, 즉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TVET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개발
- 농촌과 비형식 부문에서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장 상관성이 높은 양질의 기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여성과 소녀의 TVET 접근성 확대 및 고용에서 평등한 기회 제공

  : 양질의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 분야에 여성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가 양성평등을 주류화하고 TVET 정책을 개발·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화, 역량개발, 이행 사업에 대한 M&E(Monitoring&Evaluation)를 지원 제공

3)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 촉진

○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TVET 프로그램과 역량강화를 위해 맥락중심(context-specific)의 정책과 사회적 동의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유연하게 전환하도록 TVET과 다른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연계될 수 있는 접근을 확대

- TVET의 범분야 접근 확대: 다른 주요 개발 목표(건강, 식수 등)들의 달성

을 위해 TVET이 공헌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과 전략을 수립

- 정부 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천: 디지털 기술의 보급을 통해 기술 선진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정보통신·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교육을 지원, 인증체계·커리큘럼·교사 역량강화 등을 지원
-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기술 촉진: TVET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지도자 역량개발·교직원 및 교사의 교육·TVET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녹색 TVET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

□ 한국 TVET 분야 ODA

○ KOICA 분야별 중기 전략(2016~2020)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TVET)이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43.8% (고등교육 30.6%, 기초교육 25.6%)를 차지하는 사실을 통해 직업교육훈련(TVET)이 우리나라 공적원조 분야에서 갖는 위상을 알 수 있음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ittee) 회원국의 중등직업교육 2016년 기준 지원금액 총 규모는 8백만불 규모이며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의 공적원조는 16백만불 규모로 유상과 무상원조의 양자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 공적 원조가 실행되었음(장지순 외, 2018)

○ 우리나라는 24개 중점 협력국을 설정하고 그중 14개 국가에 TVET을 포함한 교육을 중점협력 분야로 포함하여 공적 원조를 이행하고 있음(이남철 외, 2016)

○ 과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공여 사업은 (2013년 기준) 63.6%가 훈련기관 설립 (역량강화 31.8%, 자격 검정제도 구축4.5%)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김덕기, 2014), 베트남 응에안 성 직업훈련원이나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훈련원의 성공사례와 같이 한국형 직업훈련설립 사업의 특수성이 재조명되고 있음(장지순

외, 2018)

○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성공적인 TVET을 통해 양질의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하였다고 평가됨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서방의 프로그램 기반 원조가 아닌, 한국형 시설·장비 기반의 TVET을 이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윤종혁 외, 2013)

○ 이와는 반대로, 과거 우리 TVET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수원국 중심이 아닌 공여국 중심의 시설지원을 계획하여 수원국의 기술 표준과 호환되지 않거나 지역 노동시장 분석의 결여로 직업훈련원 졸업생이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윤종혁 외, 2013)

3. 개발도상국 청소년 직업교육의 인식과 환경

□ 개발도상국 내 직업교육의 위상과 인식

○ 대륙별, 권역별로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직업교육은 체계와 실행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내포하면서도 공통적인 문제로 직업교육의 성과 도출에 큰 영향을 받음.

○ 전반적으로,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은 일반 중등교육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Alhasan & Tyabo, 2013), 중등 직업교육 여건과 졸업 후 진로는 중등학생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됨(Ai, 2015)

- 선진국의 경우 조기에 해당 교육체계에 개입하여 학생 이탈률을 줄이고 교육방법을 조정하여 직업교육의 성과를 확보함(Kingombe, 2014)

-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대상 청소년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기 전 학생의 진로를 모색하고 선호 기술에 대해 충분히 상담할 기회가 결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의 직업교육 참여 저조로 이어짐(Lahire, Johanson and Wilcox, 2011).

○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은 미흡한 직업교육체계와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숙련 기술인력으로 성장하여 적정한 소득을 약속하는 고용을 확신하기 어려움

□ 개도국 청소년 직업교육 환경

○ 개도국 청소년 TVET 여건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교사의 역량이 주요 문제로 대두됨

-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새로운 교수법이나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Wahba, 2010)
-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교육 장비 및 시설을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사재교육 제도 및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임(Thongsavath, 2014)
-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중등 직업교육의 입학생 수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직업교사의 공급도 증가하였으나 배치된 교사 대부분이 직업학교나 기술대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기술 활용 경험이 없어 양질의 기술교육이 어렵고 숙련교사가 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직업훈련 교사 자원의 한계가 중등 직업교육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함(Paryono 2015)

○ 직업교육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제한적인 예산 또한 개발도상국이 청소년 직업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TVET은 비교적 비싼 교육 유형 중 하나이며 확보된 예산 없이는 직업교육의 확장은 불가능함(Kingombe, 2014)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직업훈련 시설은 교육당국으로부터 할당받은 부족한 예산으로 필수 설비 및 기자재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임(Wahba, 2010)

- 일례로 2015년 캄보디아의 지역 중등 직업교육 시설은 배정된 예산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제한이 초래된 바 있음(Ai, 2015)
- 라오스의 경우도 정부의 제한된 예산 배정으로 TVET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과서와 교보재를 포함한 실습재료의 부족은 기초적인 TVET 조차도 어려운 상황임(Thongsavath, 2014)

○ 반면, 선진국은 산업체와 TVET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에서부터 고등 직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생에게 현장교육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와 보유 기술을 일치하도록 산학협력을 제도화하였음(Moses et al., 2016)

○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산업체의 협력은 오랜 역사를 갖고 성숙 단계에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산업체와 협력은 국가마다 그 특성과 단계가 다름

- 태국의 경우 산업체와의 협력이 결여되어있는 반면(Ai, 2015), 케냐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훈련 교육의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음(Raihan, 2014)
-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산학협력제도는 도입되었으나 교육기관과 현장 교육의 격차가 상존(Moses et al., 2016)

○ 개발도상국마다 다른 산학협력의 제도적 여건과 성숙도는 산업체를 통한 직업교육이 저마다 다른 관점과 범위에서 인적자본 개발에 관여할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직업 기술인력의 경쟁력에도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침

□ 개발도상국의 TVET은 종래 시간기반교육(Time-based training)에서 역량기반교육으로 전환을 검토하거나 도입 중에 있음

○ 실습과 이론의 연관성을 증대시키는 역량기반훈련 과정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임(Liksa, 2018)

○ 호주와 같은 역량기반교육 여건이 갖추어진 선진국은 교육에 소요되는 자

원을 산업과 교육기관이 분담함에 따라 TVET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Ewdin, 2016)

○ 하지만, 개발도상국인 모잠비크의 경우 2014년 개정된 TVET 법에 따라 역량기반교육으로 전환하였음에도(MDY Legal, 2015) 불구하고 산업체의 협력이나 실습에 중점을 둔 교육환경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랍지역의 저개발 국가들도 역량기반교육을 이행할 교사의 수급이나 재교육이 단기간에 수행될 수 없음에 따라 직업기술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UNESCO, 2019)

○ 즉, 제대로 조직된 역량기반훈련체계가 가동되는 데는 상당한 재정과 시간 및 노력이 소요됨(Edwin, 2016)

□ 이상과 같이 TVET 분야에 한계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에 참여의사를 표명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결과 농림, 기계, 건설, 전기・전자, 섬유의류, 식품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별 수요가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음

<표 2-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도상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수요조사 결과 (2018)

응답국(참여의사 표명)	TVET 분야별 수요(순위, 예상인원)	국가 TVET 도전과제	국가발전전략 또는 TVET 전략
가나	농림(1순위,80명) 기계(2순위,30명) 건설(3순위,25명) 화학공업(4순위,20명) 재료(5순위,15명)	TVET인프라부족 교원역량부족 TVET커리큘럼낙후	교육부교육전략계획2018-2030 TVET5개년전략계획2018-2023
네팔	농림(1순위,10명) 식품가공(2순위,10명) 음식조리(3순위,5명) 디자인・문화콘텐츠(4순위,5명) 재료(5순위,5명)	TVET기회부족 열악한연수시설 연수후창업관련지원의부재	
라오스	농림(1순위,15명) 기계(2순위,20명) 전기・전자(3순위,15명) 식품가공(4순위,20명) 재료(5순위,15명)	국가표준시스템적용의어려움 시설및교원부족 TVET질제고의어려움 산업계의지원부족	2016-2020 TVET 개발계획 有 (8개 전략, 26개 핵심분야, 98개 활동)
르완다	건설(1순위,16명) 기계(1순위,10명) 농림(1순위,15명) 섬유・의류(1순위,49명) 식품가공(1순위,29명)	수준높은교원부족 훈련시설부족및노후화 산업계의지원부족	교육섹터 전략계획과 연계된 TVET 정책과 TVET 전략 계획 有 (http://www.mineduc.gov.rw/resource/policies/)
말라위	기계(2순위, 300명) 전기・전자(2순위,350명) 경영・금융(3순위,350명) 정보・통신(4순위,250명) 농림(5순위,250명)	TVET교원양성기관부재 역량있는교원부족	TVET 정책 5개년 전략 문서 2013-2018
몽골	건설(1순위,10명) 농림(1순위,15명) 섬유・의류(1순위,10명) 기계(2순위,10명) 음식조리(2순위,10명) 전기・전자(2순위,10명)	평가체계부족 TVET학교의재정부족 교원부족 연수환경노후화	TVET 개발 프로그램 2016-2021
방글라데시	건설(1순위,12,900명) 기계(1순위,15,000명) 경영・금융(1순위,54,000명) 섬유・의류(1순위, 16,900명) 식품가공(1순위,3,300명) 전기・전자(1순위,28,800명) 정보・통신(1순위,14,900명)	교원역량부족 TVET인프라부족	2011 국가 기술개발 정책
부탄	건설(1순위) 기계(1순위)	재정부족 청년과부모들이기술직을선호하지않는현실	TVET청사진(http://www.molhr.gov.bt/molhr/?page_id=344)

			교육청사진(http://www.education.gov.bt/policy)
스리랑카	건설(1순위) 기계(1순위) 농림(1순위) 보건・복지(1순위) 선박운항(1순위) 섬유・의류(1순위) 수산・해양(1순위) 화학공업(1순위) 환경・안전(1순위)		
아제르바이잔	기계(1순위,4명) 보건・복지(1순위,4명) 선박운항(1순위,4명) 섬유・의류(1순위,4명) 정보・통신(1순위,6명) 화학공업(1순위,3명)		VET 전략 로드맵
에티오피아	건설(1순위) 농림(1순위) 미용・관광・레저(1순위) 보건・복지(1순위) 섬유・의류(1순위) 음식조리(1순위) 인쇄・출판・공예(1순위) 재료(1순위)		
우즈베키스탄	농림(1순위) 섬유・의류(2순위) 음식조리(3순위) 정보・통신(4순위) 기계(5순위)		
인도네시아	섬유・의류(1순위,36명)인쇄・출판・공예(1순위,36명) 정보・통신(1순위, 36명)	커리큘럼개발 인턴십,고용기회제공등에 서산업계의지원부족	인도네시아 직업발달정책 로드맵 2017-2025 (https://drive.google.com/file/d/1Tt8K0HuJm06q8zrK0NE3uT3f9aHmkGqr/view)
잠비아	건설(1순위,120명) 기계(1순위,120명) 농림(1순위,150명) 전기・전자(1순위,120명) 재료(1순위,120명) 화학공업(1순위, 120명) 환경・안전(1순위,120명)	현대적인연수시설부족 연수교재부족 산업계와의협력부족 TVET교원연수부족	TEVET 법률 13, TEVET 개정 법률 11, TEVET 정책 문서
콜롬비아	경영・금융(1순위,25명) 농림(1순위,25명) 보건・복지(1순위,25명)		

	정보・통신(1순위,25명) 환경・안전(1순위,25명)		
키르기스스탄	농림(1순위) 전기・전자(2순위) 정보・통신(3순위) 기계(4순위) 미용・관광・레저(5순위)		키르기스스탄 교육 개발 전략 2012-2020
탄자니아	농림(1순위,15명) 기계(2순위,15명) 공업(3순위,10명) 미용・관광・레저(3순위, 15명) 보건・복지(3순위,15명) 섬유・의류(3순위,10명) 식품가공(3순위,15명) 전기・전자(3순위, 15명)	TVET접근성및형평성문제 낮은연수의질 숙련된연수교원부족 M&E문제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 5개년 개발계획, TVET 개발 프로그램 2013-2018, 국가 기술 개발 전략 2016-2026 (NSDS)

4. 인적자본의 형성과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직업교육

□ 인적자본의 형성

○ OECD(1998)의 정의에 따르면 인적자본은 지식,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제 활동을 위해 구현해 온 모든 특성을 의미함(Schuller, 2001)

- 즉, 한 개인이 축적해 온 기술과 지식을 통해 생산성과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지식과 기술에 투자하는 행위가 인적자본의 형성 과정임(Schuller, 2001)

○ 한 지역의 인적자본에 사용되는 대표 지표는 교육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며, 인적자본으로 달성된 교육의 품질과 정도는 국가의 번영과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줌(OECD, 2013: Perna et al., 2015에서 재인용)

○ 인적 자본 축적 정도는 부의 축적이라는 물질적 현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 교육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발된 집합적 인적자본은 지역의 빈곤을 완화함(Khan et al., 2019)

○ 개발도상국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국제사회는 ‘의제 21(36장 23항)’을 통해 모든 개발협력사업에서 훈련 요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을 보급함과 동시에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을 권고함(Konner, 2005)

□ 개발도상국 청소년 직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 다수의 개발도상국가가 전략적으로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Moses et al., 2016)

○ 1990년대 후반,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 청소년 상당수가 초등 교육 이후 어떠한 교육도 받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었고, 직업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빈곤 극복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목함(Kingombe, 2011)

- 1999년부터 2007년간 개발도상국 중등직업교육 등록생 수가 약 28%가량 증가한 것은(Kingombe, 2011) 그 결과로 추론됨

○ Kimgombe(2011)가 분석한 OECD 자료에 따르면 대상 개발도상국가들은 중등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확대함

○ 하지만, 교육을 독점했던 국가의 역량은 약화되었고 민간차원의 직업교육은 점진적으로 증가함(Atchoarena & Esquieu 2001: Kimgombe, 2011에서 재인용)

○ 정규(formal) TVET의 재정부족은 교육시설의 낙후와 운영 역량의 약화로 이어졌고 이는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 함(Kingombe, 2011)

○ 정부가 운영하는 정규 TVET의 품질은 인적자원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밀한 계획이 결여되고 체계적이지 않은 직업교육훈련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직업교육 참여의지도 약화시키며 인적자본의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Moses et al., 2016)

- 앞서 살펴본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중등 직업교육시설이 겪고 있는

숙련교사의 공급 문제(Paryono, 2015)와 제한된 예산으로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환경(Ai, 2015)등으로 중등 직업교육 참여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상황(Ndagi & Tyabo, 2013)이 발생함

- 기능이 약화된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품질을 구비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게 되고 개도국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함(Moses et al., 2016)
- 예컨대, 인적자본 투자보다 적은 이익의 고용이 예상된다면 개도국 15세~19세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직업교육보다는 조기 노동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게됨(Lahire et al., 2011)
- 중앙아시아의 키르키즈스탄, 몽골, 타지키스탄과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직업기술교육훈련 대부분이 재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교육의 품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ADB, 2019)
- 더불어 노동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직업기술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ADB, 2019)

○ 상기 국가 TVET 시스템과 품질을 강화하고자 1) 산업고용주의 참여를 강화하고, 2) 고용주와 학생의 요구를 조정하는 ICT 기술을 도입하고 3) 자격검증체계의 강화와 정책 개발에 대한 투자하였으나(ADB, 2019), 근본적인 문제는 자국의 노동시장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됨(ADB, 2019)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해외 장학사례

○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공산주의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노동시장을 재편하는데 교육훈련 분야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Perna et al., 2015)

○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카자흐스탄이 채택한 인적자본 개발 정책은 정부의 고등교육 해외 장학 지원사업임(Perna et al., 2015)

○ 상기 정책의 실행은 기존 자국내 인적자본 개발과는 다른 효용이 발생됨(Perna et al., 2015)

- 해외 유수 교육훈련기관의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전달을 촉진하고 자국민의 국제적 시각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둠(Perna et al., 2015)

○ 실제 동 정책을 통해 해외장학을 지원받은 학생 비율은 낮지만, 해외 유학을 통해 축적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자본의 잠재적 효용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됨(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경제 성장론적 관점에서, 해외 유학은 인적자본의 수입에 해당되지만, 해외에서 양질의 교육을 수학하고 귀국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자국내 국민이 다른 비용 없이 동 기술과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것은 자국 내 직접적인 인적자본 개발로 해석될 수 있음(Kim, 1988: Perna et al, 2015에서 재인용)

- 귀국한 인재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네트워킹 등 개인 역량의 개발은 노동시장 기술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가 산업의 인적자원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평가됨(Perna et al., 2015)

□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우리 장학 사례

○ 국립국제교육원은 1)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2)학생초청연수, 3) 외국정부초청장학생 파견, 4)외국인 교환학생 지원, 5)국비유학생 파견, 6)외국인 우수자비유학생 지원 7) 한일공동고등교육유학생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국립국제교육원, 2019)

○ 한국국제협력단은 주요 개발도상국 공무원 석사과정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외대학에서의 유학을 지원하여왔음(한국장학재단 2019)

5.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

□ 직업교육의 세계화

○ 베를린 장벽 철거와 소련의 붕괴로 가속화된 세계화는 정치 경제적으로 양분되었던 세계 경제를 하나로 연결시키며 기술·정보·금융의 민주화라는 변화가 만들어짐(Basu, 2000)

○ 이러한 변화로 세계화된 시장과 통신 체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고 시장의 일부인 기술직업 인력은 유연성과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함(Basu, 2000)

○ 세계화는 이미 비즈니스 및 경영 분야 교육에 국제화라는 반향을 일으킴(Barrel et al., 2005)

○ 시장과 인적자원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화적 특성에 따라,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지와 대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됨(Barrel et al., 2005)

- 카자흐스탄 해외 장학사업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외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산업계에 진출한 인적자원이 자국 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되는 등 세계화된 경제·산업 하에서 기존의 기술인력에 요구되는 능력 등이 변화함(Perna et al., 2015)

○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통합과 변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과 직업교육 문제에 대해 개도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됨(Kingombe, 2011)

○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강대국이 세계 경제 속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일반 개발도상국은 세계화의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받기 때문임(Moses et al., 2016)

- 특히, 세계화와 국제 시장의 자유화는 현지 시장의 토착 상품과 용역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음(Lahire et al., 2011)

○ 이러한 이유로 개발도상국의 직업기술개발은 생산성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Lahire et al., 2011) 세계화에 필요한 직업 능력과 직업훈련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

○ 노동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 간 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주의 경우 장기 거주지의 변경을 동시에 수반하는 이동을 의미(Tassinopoulos & Werner, 1998)

○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이주는 본거지와 이주 지역에서 소요되는 비용 정보가 고려 대상이 되며 이주를 결정하는 주요 동기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임(Tassinopoulos & Werner, 1998)

○ 이론적으로 지역 간 이주를 하는 경우,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소멸할 때 경제적 동기에 따른 이주가 멈추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비대칭 정보로 인해 노동자의 이주는 멈추지 않음(Tassinopoulos & Werner, 1998)

○ 노동자의 이주는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유형으로 해석되는데 노동의 이주는 다양한 생산 기술, 규모의 경제, 불완전 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노동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함(Tassinopoulos & Werner, 1998)

○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과 혁신은 노동 수요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하며 특히 기술 노동자의 이주와 연관됨(Tassinopoulos & Werner, 1998)

□ 세계화와 청소년의 국가 간 이동(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가 간 이동은 여가 활동, 노동 시장 문제(본국이 아닌 외국에서 일을 찾고 고용을 확보), 학업으로 구분 되는데, 특히 노동의 국가간 이동은 공동체 경제 개발과 실업문제 및 부의 불균형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고 1)완전한 이주, 2)국가간 계절적 고용, 3)국경간 이동, 4)다국적 기업의 일시적 외국인 채용으로 구분됨(Kristensen, 1998)

○ 학업(learning process)의 경우 해외 대학 학업 이수(에라스무스 장학제도)와 같은 경우와 열악한 지역(disadvantaged region)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과의 경험 교류(3주 이내)를 위한 클럽 교류 활동(Youth for Europe)이 해당됨(Kristensen, 1998)

○ 상기 두 과정 모두 교육학적 목표(pedagogical aim)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유럽에서)으로 중요시되는 가치와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Kristensen, 1998)

- 특히, 노동시장 문제 및 여가의 특성과는 달리 학업의 경우 국가 간 이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는데 배움이라는 목적이 전제됨(Kristensen, 1998)

○ 국가 간 이동을 통한 학습과정을 통해 한 개인이 인생을 살면서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과 태도 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맥락에서의 다음 4가지 기술의 보유를 촉진시킴

- ①국제 기술(외국어 경쟁력, 문화 경쟁력), ②대인관계능력, ③직무능력, ④국제인(유럽인)으로서의 인식 개발(Kristensen, 1998)

○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시장과 기업이 광범위하고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현대에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시장의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하였음(Kristensen, 1998)

- 이러한 능력은 물리적인 이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국에 들어온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통신을 활용하여 국경을 넘지 않고도 발생함(Kristensen, 1998)

○ 원론적으로 이동에 대한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유럽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은 15세에서 27세의 젊은 층을 포함하는데, 이동 프로그램 대부분이 형식교육 즉,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과(learining process) 관련 있기 때문임(Kristensen, 1998)

○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해외 고용시장의 경험을 갖고 귀국하지만 국가간

고용을 확보한 경우는 드뭄. 이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로 긴 시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Kristensen, 1998)

○ 젊은 층에 주목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달기 청소년은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험을 흡수하고 그들의 개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임(Kristensen, 1998)

○ 국가 간 이동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서는 대상국의 학제와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Kristensen, 1998)

○ 본국과 대상국 간 학제 및 학사 시스템을 조정하고 취득한 능력을 인정해(Accreditation)줄 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소년이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인증함에 따라 폭넓은 경험과 학습을 지속할 수 있음(Kristensen, 1998)

○ 국가 간 이동 관리해 줄 국가 선도 기관 (National Center of Excellence for mobility) 설립을 통해 이동 프로그램의 지식과 정보를 취합하고 파급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생산하여 국가 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수립해 청소년의 국가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Kristensen, 1998)

○ 근로자 이동의 경우 국가 간 동등한 학위 및 자격이 필요하며,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분명한 전문 자격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국가 간 이동이 나타남(조정윤 2012)

- 예컨대, 호주자격체계(AQF, Australia Qualification Framework)나 유럽자격체계(EQF,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와 같이 국가 또는 지역자격체계(National or Reg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간 상호인정(Referencing)을 통해 노동이동이 발생(조정윤, 2012)

○ 즉, 학위 및 자격과 노동이동의 관계는 앞서 EU와 호주의 경우에서처럼 학위 및 자격이 인정될수록 근로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다시 학위와 자격 중요해짐 (조정윤, 2012)

○ 우리나라의 국가 간 노동이동과 학위 및 자격에도 적용되므로(조정윤, 2012), 우리 중등 직업교육 참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력과 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은 노동시장 참여와 이동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6. 신남방 정책과 협력여건

□ 남방과 우리의 관계

○ 1989년 아세안과 관계를 수립한 우리나라는 '아세안+3 협력(1997~1998년)'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교류가 촉진됨(최영종, 2018)

○ 연간 700만여 명의 우리 국민이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고 아세안 국가에서 200만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동남아국가 거주가 약 40만 명에 달하고 비슷한 규모의 동남아인이 우리나라에 거주 (최영종, 2018)

○ 아세안은 무역·투자 면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능가하는 제 2위 무역·투자 대상국임 (최영종, 2018)

- 아세안국가와 우리나라의 무역 연간 흑자는 300억 달러가 넘고, 우리 ODA의 약 25%가 아세안 국가에 투입되고 있음(최영종, 2018)

-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음식과 화장품뿐만 아니라 드라마, 케이팝 등이 깊게 침투해 있는 상황임(최영종, 2018)

○ 아세안 국가들은 연 5%의 경제성장률과 개인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그간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양적 협력에 질적 변화를 야기할 신남방 정책의 의미는 매우 큼(최영종, 2018)

- 세계 경제에서 아세안 신흥시장의 비율은 43.7%였으나 2018년 59.2%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며, 아세안 전체 GDP는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 전체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됨(곽성일, 2018)

현 정부의 외교협력과 신남방 정책

○ 기존 4강 외교를 유지하며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세안 국가 및 인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동반자로서의 협력과 위상을 기존 4강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강명구, 2018)

○ 기존 아세안 협력기금의 규모를 200% 확대하고(1400만 불) 한-메콩 기금도 300% 규모로(300만불)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강명구, 2018)

○ 외교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의 확장 된 영향력에 대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 책임 공동체를 구축하는 틀을 제공할 것임(강명구 2018)

○ 아세안 지역은 인구 6억 3천만 명과 2조 6천억 달러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경제사회 안보의 중요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며, 빠른 경제성장과 지역적 근접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상호협력 기반의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조정윤 외, 2019)

○ 더불어, 신남방 정책으로 아세안 지역에 확대되는 우리 공적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인적자본 개발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조정윤 외, 2019) 아시아 상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신남방 정책 추진 전략과 직업교육

○ 신남방 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1)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 협력기반 구축, 3)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 상기 목표는 사람・상생번영・평화라는 3개 주제로 16개 하위 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신남방 정책을 이행(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표 2-2> 참조)

<표 2-2> 신남방 정책의 주요 추진내용

사람 (People)	1 상호 방문객 확대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4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5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6 삶의 질 개선 지원
상생번영 (Prosperity)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8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9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11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평화 (Peace)	1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14 국방·방산 협력 확대
	15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16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출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신남방정책 추진 전략(2018)

○ 상기 주제 중, '사람(People): 추진 목표 3' 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이행방안' 으로 **신남방 지역 장학생 지원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공무원 연수규모 확대, TVET 지원의 확대 등을 명시(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하고 있어 본 연구 주제인 개발도상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접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7. 소결

□ 연구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였으나 관련 문헌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중등단계 직업교육 분야 관련 ODA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조사 분석결과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개발도상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와 기능을 SDGs의 관점에서 볼 때 중등 직업교육을 포함한 TVET이 SDGs 16개 목표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 개발도상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시행여건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중등직업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TVET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 즉,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의 양성을 어렵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이 지속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도국 중등단계 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

- 201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실시한 개도국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참여 의사를 파악한 결과 가나 등 17개 국가에서 농림, 기계, 건설, 전기·전자, 섬유의류, 식품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많은 학생을 보내겠다는 의향을 표명

○ 카자흐스탄의 '해외유학지원을 통한 인적개발확충 정책'의 일부 성공사례(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유학을 통해서 자국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외 유수기업 유치와 해외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켜려는 관점에서 본 연구 주제의 타당성을 고찰할 수 있었음

○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노동이동의 개념은 냉전 시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Basu, 2000),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력과 기술자격의 보유는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조정윤, 2012)

○ 특히, 발달기 청소년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임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성인 학습자보다 더욱 효과적이

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의미가 큼 (Kristensen, 1998)

○ 나아가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세안 지역과 인적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장학사업이 정부의 신남방 정책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이런 맥락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TVET 지원의 확대 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

제3장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1. 개요

□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과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 청취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중등 직업교육 시행 및 새로운 사업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방향을 모색

○ 동 면담 조사는 질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면담자의 입장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 면담 대상자는 ① 서울시 교육청, ②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사업 실행기관(고등학교) 교직원, ③ 중등 직업교육 ODA 사업 참여 외국인 학생, ④ ODA 사업 주무 이행기관 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수행기관) 등

○ 면담 대상자별 주요 질문 요지는 다음 <표 3-1>과 같음

- 이해당사자별 면담내용 분석을 통해 일반적 사실과 특수성을 도출하고 본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함의를 규명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분석은 물론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의 마련에 활용

□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과 영국의 해외 장학사업 사례와 TVET 연수생(학생) 유치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주제인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 즉, 해외 중등 직업교육 장학(유학지원) 사업의 사례로 1) 해외유학 지원을 통해 인적자본 형성을 모색한 ‘카자흐스탄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과 2) 영국의 해외 유학생 유치정책인 Prime Minster’s Initiative 2(PMI2)의 TVET 정책을 분석

- 카자흐스탄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의 경우 열악한 자국 교육 인프라의 구축이 어려워 자국민 해외유학 지원을 통해 인적자본을 구축한 사례로 개도국의 해외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ODA 사업 관점에서 볼 때 시사점이 있음
- 영국 PMI2 정책하에서 영국 TVET 교육기관의 개도국을 포함한 타 국가 연수생 유치 전략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정부 및 TVET 교육기관의 ODA 사업 이행방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국내사례 조사·분석을 위한 면담

<표 3-1> 면담 대상자별 주요 질문요지

번호	면담 대상자	주요 질문 요지
1	서울시 교육청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시행기관 지원 현황; 장학사업 운영 애로 사항; 우리 중등직업교육기관 장학사업 확대 요구;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의 개발도상국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2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사업 실행기관(고등학교) 교직원	장학사업 참여학생의 현황 및 관리 상황; 장학사업 참여 학생의 유학 목적;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졸업후 진로(국내취업과 진학 현황);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귀국후 본교와의 네트워킹 현황; 장학사업 참

		여 학생들의 산업체 실습 참여 현황
3	중등 직업교육 ODA 사업 참여 외국인 학생	한국 중등직업교육 과정 참여 동기; 한국 중등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한국의 중등직업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적절성과 유용성; 한국 학생들과 친교 상황, 한국 생활을 하며 가장 불편한 점과 좋은 점; 산업체 실습을 통해 배운 기술과 경험의 유용성; 교육과정 및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졸업 후 한국의 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의 활용 계획; 자국 후배에게 참여 권유 여부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장학사업에 대한 평가; 신남방 정책과 관련한 교육부 정책
5	ODA 사업 주무 이행기관 (KOICA)	중등직업교육 연수사업; 중등학생의 초청 장학사업 가능성;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초청사업에 대한 의견

□ 장학사업 시행 기관(K 고등학교) 면담 조사

○ 면담 개요

- 실시일자 : 2019. 11. 12
- 실시장소 : K고등학교 회의실 및 생활관
- 면 담 자 : A교감, B연구부장

○ 주요 면담내용

- K고교는 1998년부터 북방지역 교포 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을 20여년간 시행해 오고 있음

- 북방 4개국(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으로부터 초청하여 직업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및 재학생은 약 2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졸업생 140명 중 111명이 국내 대학진학, 29명 대부분이 해외 대학 및 자국 대학에 진학하였음. 대학 전공의 경우 50%가 인문계열(경제, 경영 등)이며 50%가 이공계열(기술공과)임

- 초청학생 대부분이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자국에 진출한 지사에 취업하고자 하며, 자국의 일반 기업에 취업은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음

> ***"학생들이 대부분 꿈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 안 돌아 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거고, 그게 아니면 자기 나라로 진출하는 대기업 지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는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등급 정도면 인서울 대학교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등급 받는 애들은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요"(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초청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한국어 능력에 크게 좌우되고 대학진학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이나, 국가별, 개인별로 학생의 한국어 선행 학습정도가 상이함

> ***"이 학생들은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대학 갈 학생들인데 5등급도 안 따고 대학가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대학을 진학하면서 학생들 반정도는 경제 경영등 전공과 관련없는 과에 가고, 반정도는 전공으로 가는데....."***
> ***"학생들 대부분 꿈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 안 돌아 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거고, 그게 아니면 자기 나라로 진출하는 대기업 지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는데 (한국어 능력) 4등급 정도면 인서울 대학교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등급 받는 애들은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요"(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국가에 따라 초청학생의 초중등 학습정도가 상이함.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중등 교과과정에 영어가 없는 등 일반 교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음

“에컨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공교육에서 영어를 안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배우는 거죠. 학생들 교과목 시험도 다 보고 하지만, 대학 진학을 할때는 성적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우선이 되니까요.” “1학년 한국어 수업시수가 주에 17시간 정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이들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초청학생의 학습 역량에 따라 일반반(우리나라 재학생 반)에 합류하여 학업을 성취하고 우리나라 학생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초청학생은 일반과정 및 실습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한국어 능력 5등급이 되면 일반(일반 재학생)반에 가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명이 (일반반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그런데 아이들이 일반반에 가는걸 안 할려고 해요.” “옛날에는 대학도 전공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전공쪽으로 안하고.... 요즘에는 대학도 한국어 능력만 갖고 애들을 뽑다 보니까 애들이 전공 참여를 안할려고해요”(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안산에 소재한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방학기간 참여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일반 산업현장의 경우 학습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초청학생의 현장학습에 제약이 많음

“산업체 실습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원하는 아이들도 없고요. 그래도 아이들 실습 관련해서 연구해보고 있는데, 안산에 가면 일주일간 입소해서 외국인들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취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름 방학이 짧기는 해도 여름 내내 먹고자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고 절반 정도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요.....”(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초청학생은 학년·학급별이 아닌 국가별로 교우하는데, 선후배 관계가 없는 자국 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잘 어울리고요. 몽골아이들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좀 통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중국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교류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데 빠른 경향이 있고요. 4개국 아이들은 선후배 관념이나 문화가 없으니까 학년단위 보다는 나라 단위로 모이는게 편한 것 같아요.”(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초청학생 선발 시, 현지 한국문화원에서 입학설명회 및 선발을 대행하는데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의 선발과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요구됨

“학생 선발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학생을 선발하고 배정되서 온다고 하면, 공항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오는 과정부터 시작이거든요. 학생을 선발하는 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현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선발해서 저희에게 명단 주면 그때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이에요. 현지에서는 교육원이 선발하는지 문화원이 선발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가정 방문 형식으로 학생 출신국을 방문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선발이나 그런걸 다 해주더라 구요”(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문화와 언어가 달라 초청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가 어렵고, 방학 중 학생 관리, 비자 발급 지원 등의 같은 추가 업무 등으로 지도교사의 업무가 과중함

“학생들의 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학과 교육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저녁때 학생 지도 문제라던지, 겨울방학에는 잠시 귀국을 하지만, 여름 방학 학생 관리나 지도라든지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게 부담이 엄청난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2019년 11월 12일 K고등학교 A교감, B연구부장).

□ 서울시 교육청

○ 면담 개요

- 실시일자 : 2019. 11. 12
- 실시장소 : 서울시 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실
- 면 담 자 : S 진로직업교육과장, C 장학관

○ 주요 면담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국제화교육 지원사업을 2018~2022년 착수하였으며, 서울시 25개 구, 80개(순수 특성화고 70개, 산업정보고 6개, 마이스터고 4개) 특성화고에 국제화교육을 지원 중에 있음
- 동 사업은 10대 중점 과제 즉, ①해외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초청 직업교육 확대, ②특성화고 학생 다국적언어(외국어)교육 확대, ③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확대, ④서울 특성화고 우수 직업 교육 모델 전파, ⑤학생 및 교원 직업기술 교류 확대, ⑥국제화 전문기관과 MOU 체결 및 연계 협력, ⑦특성화고 재직 교원 국제화 교육 지원단 구성, ⑧학교별 해외 자매결연 확대, ⑨서울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 지원 자문관 위촉, ⑩특성화고 국제교류 홍보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북방 교포 자녀 초청 직업교육 사업은 연간 예산이 3억 3천만원 규모로 약 20년간 시행되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남방 개발도상국 청소년으로 확대 계획을 갖고 베트남,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청소년을 2021년 초청할 계획임

“북방교포 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은 연간 예산이 3억 3천만 원으로 경기공고에서 진행 중입니다.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20년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성과 측면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귀국을 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본 경험을 가지고 남방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 국제화 사업을 계기로 베트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에서 학생을 초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숙사 문제로 2020년부터 방글라데시와 동티모르에서 학생초청 사업을 착수하고, 실제 학생이 초청되는 시기는 (기숙사 등) 제반사항이 준비된 202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2019년 11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S 진로직업교육과장, C 장학관)

- 현재 Asian Development Bank(ADB)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협력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잠정적으로 한 학년에 60명씩 3개 학년 180명에 대한 초청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향후 ADB와 협력하여 한 학년에 60명씩 3개 학년 180명의 동남아 학생 및 지도교사를 초청하여 중등직업교육 실시를 계획 중인데, ADB 측은 올해 동 사업을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한국의 공무 절차가 있으니 올해 당장 착수할 수는 없지요. 우선 구상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ADB가 내고 교육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자는 건데 2~3 개월 안에 좀 더 발전된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2019년 11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S 진로직업교육과장, C 장학관)

- 초청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ADB는 TVET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음에 따라 진로 및 취업관의 고용 등을 고려해야 함

"중등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ADB에서 사업목적성과 관련해 난색을 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지원이나 국제적 취업 지원관의 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2019년 11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S 진로직업교육과장, C 장학관)

- 한편,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도 개도국 청소년 직업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귀국 후 선진기술 보급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업기술을 배워 한국사회에서 점점 줄어가는

노동력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선진 기술을 보급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2019년 11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S 진로직업교육과장, C 장학관)

- 외국인 학생 학급이 증가하면 지자체 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으로 외국인을 교육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하지만, 외국학생 비중이 늘어나면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들 일부는 왜? 시 교육 예산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 데려다 공부 시키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 사례로 타 지역(강원도, 인천) 학생들 데려다가 서울에서 공부 시키냐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2019년 11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S 진로직업교육과장, C 장학관)

□ 장학사업 시행 기관(K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 면담 조사

○ 면담 개요

- 실시일자 : 2019. 11. 15.
- 실시장소 : K공업고등학교 교실
- 면 담 자 : A학생(중국), B학생(우즈베키스탄), C학생(몽골)

○ 주요 면담 내용

- 한국 중등직업교육을 참여하게 된 주요 목적은 한국어 습득임

"공부하려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언어 배우려고요. 몽골에서 좋은 말이라 더 배우고싶어서 참여했어요"(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C몽골 학생)

- 한국 중등직업교육을 참여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와 문화 의사소통과 학습 참여임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건 언어와 문화가 많이 낯설어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부하는게 더 어려웠어요.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장 컸어요. 한국말 할 때 서툴러요(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 우즈베키스탄 학생, C몽골 학생)

- 출신국에서 배운 교육 내용 중 수학과 영어는 우리나라 일반중등직업교육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학업의 보조 수단으로 유튜브를 사용

“본국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한국에와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학하고 영어는 조금 도움이 되었어요. 공부하다 잘 모르는 부분은 보통 혼자서 공부하는데 온라인(유투브)으로 공부했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C몽골학생).

- 우리나라 기술실습은 주 2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매우 어려웠음

“기술관련된 실습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2번정도 했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에 참여하며 상급학교 진학의 목표를 가졌으나, 직업기술 과목이 인문계 대학전공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지원했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지금 배우는 기술이나 공부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를 경영으로 지원했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 우즈베키스탄 학생)

- 현재 보유 자격증은 없으며 향후 대학에 진학해 자격증 획득을 원함

“(컴퓨터 학과에 지원했는데) 자격증 없어요. 대학교가서 자격증 따고 싶어요.(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C몽골학생).

- 한국 학생들과 운동을 같이 하기는 하나 개인적인 친교 상황은 없는 상황이며, 유학생들과는 네트워크를 형성함

“한국학생들하고 같이 농구하거나 할 때 같이 놀아요. 따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국학생은 없어요.” “유학생들끼리는 친해요. 국가 상관없이 게임도 하고, SNS 있어요. 카카오톡에 전체(유학생방) 다 있어요. 한국어로 정보를 공유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우즈베키스탄 학생, C몽골 학생)

- 이공계 대학을 지원한 학생의 경우 산업체 실습이 긍정적인 반면 인문계 대학 지원 학생의 경우 실습을 불원

“기아나 현대 같은 산업체 실습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요(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C몽골 학생)/ 관심없어서 가보고 싶지 않아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우즈베키스탄 학생)”

-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선생님 등 및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해결함

“어려울 때 국어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생활할 때 어려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어요. 혼자 해결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우즈베키스탄 학생, C몽골 학생) “선배들이 대학 지원하는 거 도와줬어요.”(몽골) / “선배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중국, 우즈베키스탄)

- 중등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한국어는 졸업 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나 실습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졸업후에 여기서 배운 것 중 한국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습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겟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우즈베키스탄 학생, C몽골 학생)

-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한국 회사의 취업에 관심 있으며, 대학원 이상을 진학하고자 함

“한국취업 관심 있어요. 삼성 같은 회사의 경영 관련된 일이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A중국학생, B우즈베키스탄 학생) ”앞으로 더 공부해 서 박사하고 싶어요. 3년 지나보니... 몽골에서는 수

업이 어려운데... 취업도 잘 안되는데...한국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11월 15일 K고등학교 C몽골 학생)

- 자국 후배 학생들에게 본 과정의 권유에 대해선 입장이 나뉨

“본국 친구들에게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몽골). “안하고 싶어요”(중국). “매년 본국에서 후배들이랑 한국에 오기 전에 설명회 같은 걸 해요. 나중에 저도 가려구요”(우즈베키스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면담 개요

- 실시일자 : 2019. 11. 27.
- 실시장소 : 국제고용개발원
- 면 담 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OO 박사

○ 주요 면담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등교육 장학사업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 교육부가 아세안 학교 교류사업으로 확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육 장학사업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 단위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확대·적용하려고 하고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3년 전부터 교육부가 아세안학교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와 교사와 학생의 교류프로그램이고, 지식의 추상적인 전달보다는 외국에 가서 교육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도국의 접근인데요...이 사업에서는 EAS(East Asia Summit)에서 추진한 단기 학생 및 교사 교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EAS에서도 단기프로그램을 중장기로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OO 박사)

- 교육부 전국 4대 권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거점학교에서 개도국과 교류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다른 참여학교와 공유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확대 계획

>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거점학교에서 개도국과 교류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다른 참여학교와 공유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국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인데요. 성과확산을 위해서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 예산은 5-10억 정도를 예상 하고 있어요." (2019년 11월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OO 박사)***

- 2021년 미얀마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부는 아세안 개별 국가의 TVET 담당부서와 MOU를 체결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임

> ***"아세안 교육부 고위공무원 정책협의회(사무국: 직능원)가 EAS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에서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이고..교육부에서 아세안 개별 국가의 TVET 담당부서와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이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교량역할을 하고 특성화고가 실제 play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국제협력사업을 가이드할 전문가 양성(전직 교장, 교사 출신 등이며 EAS 사업에 의해서 이미 태국 , 미얀마. 인도네시아 자매결연학교 방문을 통해서 교육과정개발 및 시행 등에 대한 자문을 시행)을 통해서 개별 학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요. 개발도상국 협력대상 학교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도 지원할 것이고....."(2019년 11월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OO 박사)***

- 교육부는 신남방정책의 추진 차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 확대할 예정

> ***"교육부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차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북방정책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교육부(국제협력담당관실)가 주도하여 신남방, 신북방 관련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ERIS 참여)가 마무리되어 있어요"***
> ***(2019년 11월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OO 박사)***

□ ODA 시행 주무기관(KOICA) 연수사업담당자 면담 조사

○ 면담 개요

- 실시일자 : 2019. 11. 29.
- 실시장소 : ODA 시행 주무 기관 회의실
- 면 담 자 : 연사사업 담당 직원 A씨

○ 주요 면담내용

- 연수사업의 주요 대상은 개도국 공무원이며, 중등학교 대상 연수는 중등학교 교사 역량강화 경험이 있으며, 중등 학생 초청의 경우 비자발급 및 체류 등의 문제로 대상자 포함이 어려움

> ***"중등 직업교육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연수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개도국 공무원들이 연수초청 대상 입니다. 중등 연수는 특수하게 개도국 중등학교 교사 역량강화를 시행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학생초청의 경우, 비자발급 및 체류 문제 등으로 대상자로 포함하기 어려습니다."***
> ***(2019년 11월 29일 ODA 주무기관 A 연수사업 담당 직원)***

- 중등직업교육 장학생 초청사업의 효과성이 있겠으나 나라마다의 특성으로 한국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연수 형태의 지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학생대상 교육은 한국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고 접하고 배우고 돌아가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오지 않아도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교육이 진행되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시켜서 현지연수 형태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9년 11월 29일 ODA 주무기관 A 연수사업 담당 직원)***

- 중등직업교육의 취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인 반면, 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진로로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교육 연수의 일환으로 국내에 학생을 초청할 경우 장점도 있겠으나 당초 사업의 취지가 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초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려됩니다."(2019년 11월 29일 ODA 주무기관 A 연수사업 담당 직원)***

3. 해외사례 조사·분석

1). 카자흐스탄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 사례[2)]

□ 카자흐스탄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 배경

○ 카자흐스탄 대통령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에 의해 1993년 시작

○ 1993년 대통령령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유학 지원 사업인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 이행을 실시하고 인적자본 형성을 카자흐스탄 국가 중요 가치로 천명

-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카자흐스탄은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당한 노동시장 개편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 교육·훈련 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

○ 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자국민에 대해서 해외 고등교육(Higher/Post Secondary) 유학을 지원

□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

○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총 9,233명을 지원, 2015년 기준 3,000명이 24개 국가 200개 대학에서 유학

○ 외국 교육을 통해 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기제시 능력, 리더십을 구축하였으며 적응능력 및 통합 능력이 높다고 평가

○ 기존 카자흐스탄 교육체계에서 양성된 인력과 비교할 때 Bolashak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외국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환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크게 공헌

---

2) 이 사례는 Perna, L. W., Orozs, K., Jumakulov Z. (2015). ‘Understanding the human capitalbenefits of a government-funded 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한 내용임

○ Bolashak 참가자들을 주축으로 한 분야별 사업에 필요한 지식의 축적과 보급은 산업의 발달 촉진에 기여

○ 영어 및 기타 외국어에 능통한 인적자원개발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의 국제 관계 및 교역에 기여

□ Bolashak Scholarship 지원 학업 과정

○ 1993년 당초 계획은 해외 석사과정만 지원하려 하였으나, 2000년에는 박사 과정을 지원, 2005년에는 학사과정을 지원하고 2008년에는 단기 인턴십 과정을 지원

○ 카자흐스탄 Nazabayev 대학의 향상된 학사 교육 공헌도, 프로그램 비용 절감, 어린 학생의 4년간의 해외 체류 부담으로 2010년 학사과정은 폐지

- 학사과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 노동시장에서 외국 공과 대학 졸업자 수요가 상존하며, 국내 대학의 교육 품질이 낮다는 점이 지적

□ Bolashak Scholarship 지원 전공

○ 2013년 카자흐스탄 국가 간부 해외 훈련 위원장은 본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본 프로그램이 경제·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피력

- 본 프로그램 이행 초기인 1994-1997년에는 경제 및 인문학이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과학, 공학, 정보통신학의 지원이 증가함

- 더불어, 법학과 의학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본 프로그램 지원 전공에 포함

□ Bolashak Scholarship 참가자 의무복무

○ Bolashak 프로그램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귀국 후 전공 분야에서 5년간 의무복무

- 출국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의무복무

○ 요구되는 직무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귀국하지 않는 경우 유학비용을 반환해야 함

- 유학 자금 반환은 사전에 제출한 담보의 처리로 이루어짐

○ 유학기간 중 인턴 활동 및 경제활동에 참여 불가

○ 프로그램 참가자가 습득한 지식·기술과 당초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인력활용의 위험 상존

□ Bolashak Scholarship 참가자들이 습득한 지식의 기존 사회로의 통합

○ 서양 가치를 카자흐스탄 국내 산업으로 유입하며 생기는 마찰 발생

○ 유학 프로그램 참가자 자신을 국내에서 양성된 인력과 차별 및 구분하는 문제 발생

○ 반면, 목표지향적인 업무 태도 등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

2). 영국 Prime Minister's Initiative (2차) 사례[3)]

□ Prime Minister's Initiative(PMI) 배경

○ 1999년 PMI 1차로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성인교육(Further Education : FE) 25,000명,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50,000명 증가를 목표로 한 영국 내 유학생 유치정책 시행

3) 이 사례는 Baldauf, B., Hogarth, T. and Hoyos, M (2008). Going global? UK FE/TVET-opportuniti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최종 보고서를 위주로 분석한 내용임

- 교육 마케팅 촉진, 비자 완화, 비EU 학생 근로 규제 완화 및 장학금 지원

○ 2차 PMI(2)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성인교육(Further Education: FE) 30,000명,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70,000명 증가를 목표

-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영국 교육 브랜드화, 유학경험 양질화, 전략적 파트너쉽 및 협력

□ 2차 Prime Minister’s Initiative(PMI2) TVET 학생유치 전략 배경

○ 대상국가의 경제성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TVET 역량부족으로 미래 경제성장을 위협

○ 대상국가들은 TVET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 교육방법론, 자격체계 현대화, 교사 및 교사 재교육, TVET 체계 관리 혁신에 외국의 지원을 기대

○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국가 인적역량 개발에 효과적이며 영국은 발전된 TVET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학연수생(학생) 증가 예측

□ 2차 Prime Minister’s Initiative(PMI2) TVET 유치를 위한 5개 주요국가(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요구 분석

○ 중국: 중국에 국가직업자격체계(NVQs), 국가직무능력표준(NOS) 및 교육혁신(pedagogical reform) 등에 기반하여 성장 가능 시장으로 분석

○ 인도: 인도정부는 VET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나 역사적으로 VET는 젊은 층에 낮은 위상의 교육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인식됨. 반면, 인도 정부는 현재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필요를 인지하고 VET에 참여하는 인구를 5%에서 50%로 향상 계획. 인도에서 생성된 VET 개혁에 대한 모멘텀을 포착하고 성장 가능한 시장으로 분석

○ 러시아 :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과 같은 인프

라의 수요가 증대. 1차 산업과 제조산업에 기초한 기존 직업훈련은 서비스 기반의 경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1997년 고용주와 TVET기관이 노동 수요·공급에 대해 대화한 결과, 공급 차원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직업기술인력 공급을 진작하기로 결정. TVET 시스템 개혁을 위해 외국 기관 (월드뱅크 및 EU)과 협력. 영국은 성장하는 러시아 TVET 시장 점유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베트남 : Doi Moi 개혁의 결과로 특정 분야 경제가 개방되었으며 특히, 2007년 WTO에 가입하며 외국인 투자가들의 베트남 시장참여를 촉진하였음. 숙련기술인력 부족은 경제성장에 대한 잠재적 제약임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해 TVET 체계 수립 및 관리, 직무능력개발, 이를 추진하기 위한 TVET 기관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일 GIZ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

○ 아랍 에미레이트 (UAE) : 1970년 이래로 급속하게 증가한 인구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으로 기존 교육체계가 개편. 다변화된 경제 분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TVET 제도 개선 및 교사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영어능력 향상, 관광 및 호텔 분야 직업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

□ TVET 공급 경쟁

○ 국제 TVET 시장에 대한 영국 TVET 교육기관의 역량은 이하 여건과 긴밀하게 연관됨

- 1) 품질 및 가격, 2) 자격과정의 적절성, 3) 외국 교육기관과의 경쟁력

○ 영국은 호주, 독일 등의 경쟁자들과 TVET 유학생 유치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짐

- 영국은 높은 수준의 TVET 시스템과 외국 원조에 특화되어있는 높은 수준의 통합성을 보유.
- 반면, 호주와 독일의 경우 원조사업과 통합성은 높으나 국내 TVET 사업

이행자(교육기관) 간 경쟁은 낮은 편임

- 영국의 TVET 시장 진입제도는 기업적 접근을 따름으로 영국은 TVET 시장 진입에 대한 높은 경쟁력과 비교우위(시장성)를 가짐
- 영국은 강한 직업자격체계(NVQF)와 국가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는 강점이 있음

○ 반면, 국제 시장에서 영국의 TVET 교육기관의 불리한 점은 경쟁자인 독일, 호주와 달리 TVET 시장진입을 국가지원 없이 스스로 해야 함

- 호주와 독일의 경우 국가주도 협력방식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음

□ 영국의 TVET 공급(유학생 유치) 기관 현황

○ 98개 기관(College)이 국제 TVET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계획이 있음

- 많은 기관(College)이 국제 TVET 사업에서 성장을 경험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
- 몇몇 기관은 외국 학생을 유치하여 교육(훈련)하는 활동을 넘어 폭넓은 국제활동(원조사업 협력 이행 등)을 하고 있으나 주요 활동은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임
- 국제 TVET 활동의 주요 소득원은 외국 학생 등록금
- 국제 TVET 시장 참여 및 운영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은 장기간의 운영경험을 갖고 있음. 현재 활동은 과거의 투자가 이룩한 토대에서 이행되고 있음
- 몇몇 국가에서는 유학생 파견교육에서 영국 교육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현지에서 교육을 진행

□ 영국의 국제 TVET 사업 (유학생 유치) 발전 방향

○ 11개 대학(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소재)에 대해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국제활동의 범위와 특성, 도전, 필요지원, 향후 발전방향 등을 조사

- 국제활동의 범위와 특징은 다양하며 ‘틈새시장 공략’, ‘용역계약자 및 하도급 계약자로서 프로젝트 이행’, ‘비상업 및 상업적 교육’ 등이 혼합된 형태의 TVET 제공
- 국제 TVET 사업 추진요소로 1) 성인 학습에 삭감된 교육기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 소득의 필요와 2) 대학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한 영국 정부의 계획을 포함
- 글로벌 경제 참여를 위해 교육기관의 인력과 학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비전을 준비
- 새로운 시장 개척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금융 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 영국 TVET 교육기관의 주요 도전

○ 국제 TVET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 시장 포지셔닝에 인력 및 금융의 선투자가 요구됨

- 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자원이 매우 한정적임
- 외국 인력 유학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의 인프라 변화 발생
- 타 국가 및 교육기관과의 경쟁

○ 호주와 독일이 국제 TVET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으며 원조기관과 결합되어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영국 시스템은 원조 기관과의 결합이 적고 영국 내 이행 주체 간의 경쟁이 발생

4. 소결

□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행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대한 경험을 20년간 축적해 온 바 있음

- 그러나,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 능력,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우수한 학생의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

- 현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주로 목표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목적과는 격차가 있는 상황

- 따라서, 교포자녀 초청을 위한 유학생 선발 당시부터 직업교육의 목적에 맞는 경력개발경로에 관심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

-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서 선취업-후진학의 경로를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진로를 개발하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

○ 중등직업교육 단계의 국제협력 활동 및 ODA 사업에 있어서 그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한편, 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간 협력형태로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구축된 국내 직업교육 인프라와 시행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학생초청 ODA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관심이 높아 정책추진의 모멘텀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판단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ADB 간 협력을 통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경험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

-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국제협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는 그간 EAS 등의 사업을 통하여 동 사업의 추진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
- 향후, 교육부에 의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개도국과의 협력은 확대·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도국 관련 부처에서는 TVET 선진국에서 직접 TVET분야의 학습과 일 경험을 쌓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한국으로 개도국 학생을 초청하는 방식의 직업교육 ODA 사업이 개도국의 요구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카자흐스탄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개발도상국 인적자본 구축 및 경제발전 기여 가능성을 예측

○ Bolashak Scholarship 프로그램의 실행은 기존 인적자본 개발과는 다음과 같은 효용이 발생됨(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해외 유명 교육훈련기관의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자극하고 국제적 시각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둠(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이러한 측면에서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 청소년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자국 내 인적자본 구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해외 유학은 인적자본의 수입으로 해석되는 반면, 유학을 통해 형성한 지식을 근거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자국민에 다른 비용 없이 동 기술과 지식을 보급되는 것은 직접적인 인적자본 개발임(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에서 인용된 Kim, 1988)

- 귀국한 인재가 해외 유학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개인 역량을 통해 노동시장 기술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청소년은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전달·파급하며 자국민의 직업기술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영국 PMI2 정책에 따른 TVET 교육기관의 연수생(학생) 유치 및 국제활동 사례는 우리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ODA 장학사업 이행 경쟁력 개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향상 방안에 대한 관점을 제공

○ 영국 PMI2 정책으로 영국 TVET 교육기관은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경제적 접근을 통해 경쟁력을 키움

- 영국의 TVET 교육기관은 영국 내 교육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해외 유학생 유치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
- 호주와 독일 TVET 교육기관과 달리, 해외 원조사업 참여자로서의 입장이 아닌 기업관점의 접근을 통해 TVET 품질을 향상

○ PMI2는 해외유학 지원을 통한 인적자본 개발이 효과적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된 영국의 TVET 시스템이 개도국 및 주변국의 영국 유학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본 연구 주제인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의 방안으로, 향후 우리 직업교육의 브랜드화 및 유료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제4장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1. 개요

□ 본 장에서는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가 설정한 ODA 지원 5대 기준인 적절성(Relavance), 효과성(Effectivness),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을 통해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분석하고자 함

○ 적절성: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목적, 대상, 여건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

○ 효과성: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한 개도국, 개인(학생), 기업 등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 효율성: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이행에 대한 경제적·참여자 관리 면에서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

○ 지속가능성: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지속가능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제시

○ 영향력: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국제적·국내적(개발도상국)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참고] OECD DAC

- OECD DAC(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 공여규모가 가장 큰 국제기구로서 OECD 30개 회원국이 개발 원조를 협의하는 위원회
-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OECD 산하의 원조기구

-OECD DAC의 2018-2022년 원조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음

The overarching objective of the DAC for the period 2018-2022 is to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relevant policies so as to contribute to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overty eradication,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a future in which no country will depend on aid.

2. 적절성(Relevance)

□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목적의 적절성

○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이 선진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유능한 기술·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자국 경제·산업 개발에 참여하여 빈곤 해결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현대의 경제시스템은 국경을 초월한 가치사슬에 의해 영향받으며, 지속적이고 유연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력 확보가 필요함 (김민규 외, 2015)
-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해 선진기술과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력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중요 인적자원으로 인식되고, 자국 경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
- 더불어, SDGs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의 세부 목표(4.4)인 '취업·양질의 일자리·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및 성인의 수 증대(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6)' 달성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함

○ 개도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활동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연결할 수 있는

현지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Win-Win) 협력 환경을 구축

- 개도국은 우리기업이 진출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할 수 있으나, 우리기업의 이해와 현지 특수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술·기능인력 부재로 투자의 지속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 개도국 학생의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현지의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 진출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개도국 및 국내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

○ 아세안 등 개도국 정부는 국내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개도국 학생 파견 등 실질적인 협력 요구에 대응

- 개도국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기술 및 적정수준의 교수법을 적용·활용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고 (Wahba, 2010), 직업교육을 시행할 충분한 예산의 부재로(Ai, 2015) 양질의 직업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여서 개도국 정부는 우리정부에 학생 파견 등 실질적인 협력을 요구

□ 장학사업 대상의 적절성

○ 장학사업의 대상은 개도국 청소년(15세~18세)으로 선진 직업교육 체계의 적응이 용이하고 학습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발달기 청소년은 청장년에 비해 개방적이면서도 수용능력이 뛰어나, 필요한 경험을 흡수하여 개인능력으로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데 유연함 (Kristensen, 1998)
- 자국과는 다른 문화와 교육 시스템에서 시행되는 장기 초청장학사업의 목적을 상기 언급한 청소년의 특성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세계화로 인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통합과 분리가 빠르

게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과 직업교육 문제에 대해 개도국 정부의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Kingombe 2011)

□ 장학 사업 여건의 적절성

○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여건상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동 시설을 운용·활용할 수 있는 중등직업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며, 교사재교육(in-service education) 제도도 미미한 상황임 (Thongsavath, 2014)

- 개도국의 중등 직업교육 시설은 배정된 예산의 부족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이 제한되거나(Ai, 2015), 기초적인 실습재료가 부족하여 TVET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있음(Thongsavath, 2014)

○ 우리나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국내 TVET 인적·물적 인프라 품질과 규모면에서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생을 수용 가능한 상황이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유사사업을 기 계획하여 2020년 추진을 준비 중에 있음

- 서울시 25개 구, 80개(순수 특성화고 70개, 산업정보고 6개, 마이스터고 4개) 특성화고에 국제화 교육을 지원 중에 있음

- 북방 교포 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은 연간 예산 3억 3천만 원 규모로 약 20년간 시행되었으며, 남방 개발도상국 베트남,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21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우리정부의 개도국 공적원조는 직업훈련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현 정부 정책기조 또한 동 분야 협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중등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정부는 2016년 기준 유상과 무상원조의 양자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16백만불 규모로 직업교육 공적 원조를 이행

-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신남방 지역 장학생 지원사업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확대 등을 명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하고 있어, 향후 중등 직업교육 초청 장학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3. 효과성(Effectiveness)

□ 개도국 선진 기능·기술 인력 보유 효과

○ 우리나라의 선진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기술을 습득한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귀환으로 자국 직업기술교육으로 양성 가능한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이 유입되고 자국 내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

-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의 경우 실습에 중점을 두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실적인 실습을 제공함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와 동시에 다변하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선진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여건형성에 기여

- 저소득 국가의 경우 부족한 재원 문제는 직업기술교육의 낮은 품질로 나타나고 (ADB, 2019),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스킬 등 직무수행능력을 체득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도국의 열악한 중등 직업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청소년의 역량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기술 수요에 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반면, 우리 중등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양성된 개도국 기술인력은 개도국 산업발전의 즉각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개도국 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해외 유학을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국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자국민이 다른 비용 없이 동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카자흐스탄의 사례(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에서와 같이 우리 중등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귀환은 자국 내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기업활동 촉진 효과

○ 우리 중등직업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청소년은 우리나라 산업체 실습 경험을 통해 우리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 내용과 수준을 이해하고 자국의 산업, 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가교역할이 기대되어 이러한 측면에서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발전에 기여

- 상품시장과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화적 특성에 따라, 대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지와 대처는 필수적인 사항(Barrel, Teal, Gloet, 2005)

- 우리 중등 직업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청소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해하는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카자흐스탄 해외장학사업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외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산업계에 진출한 인적자원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Perna, Orosz, Jumakulov, 2015).

-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양질의 인력 고용을 통해 대상 국가의 노동시장 숙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지 기업의 발전 도모가 가능

□ 개도국 내 직업교육 인식개선 효과

○ 우리나라 직업교육 이수 결과에 기반하여 취득하게 되는 학력과 국가기술자격증은 개도국의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위상과 인식을 개선하여 더욱 많은 개도국 청소년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발전 및 빈곤 해결에 참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 기능이 약화된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품질을 구비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게 되고 개도국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위험을 초래(Moses, Muladi and Wibaya, 2016).

- 인적자본 투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예상되는 개도국 청소년은 직업교

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조기 노동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Lahire, Johanson and Wilcox, 2011), 이는 개도국의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위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우리 중등 직업교육을 통해 높은 통용성이 부여된 학력과 자격(증)을 확보한 개도국 청소년은 국제적 노동시장 참여와 이동기회가 증대되어, 소득증대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

□ 양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촉진 효과

○ 개도국 청소년의 국내 중등 직업교육 초청에 따라 양국 청소년들이 세계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ODA 초청 장학사업으로 개도국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친교 활동을 통해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도국 학생들의 경우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기술 외에도 국가 간 이동으로 ①외국어 및 외국문화 이해, ② 팀워킹 등 대인관계기술, ③ 세계인(cosmopolitan)으로서의 소양을 개발할 수 있음(Kristensen, 1998)

-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개도국 학생들과의 접촉과 소통을 통해 세계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체득할 수 있는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4. 효율성(Efficiency)

□ ODA 중등 직업교육 초청장학사업 비용 측면의 효율성

○ 과거 우리 ODA 개발도상국 직업교육 지원사업은 교육 인프라 구축 위주로 초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설립 이후 개도국 정부는 직업교육기관

에 소요되는 적절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술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이러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TVET 분야 공여 사업(2013년 기준)의 63.6%가 TVET 기관 설립을 요구한 개도국의 수요에 부합하여 추진한 결과(김덕기, 2014)

- TVET 기관 설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초청 장학사업에 비하여 개도국 현지에서 많은 수의 직업교육 이수자를 저렴한 예산으로 교육이 가능

○ 개도국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초청 장학사업에 비해 사업대상(청소년)의 특성상 투자금액 절감

- 중등 직업교육의 경우 개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성인과 다른 인프라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기존의 우리나라 특성화고 및 공공 실습 시설 사용, 공립학교 교사의 동원 등이 가능함으로 성인 교육생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예산 절감 가능

○ 우수 기술인력(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 수료 수준) 양성을 위한 개발도상국 중등 직업교육 품질 제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이 막대함으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은 초청 장학사업이 효율적임

- 개도국 교육훈련 당국은 중등 직업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수 교사를 양성하는데 장시간의 교사 훈련과 비용이 소요되어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어려움 호소 (Paryono, 2015)

- 개도국의 경우 필수 설비 및 기자재 구매에 대한 예산 및 관리에 대한 예산 보유의 어려움으로 직업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장시간 소요

- TVET 시스템 구축과 운영 차원에서 볼 때 개도국은 효과적인 실습과 산학협력을 활용한 양질의 역량기반훈련체계 이행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Edwin, 2016).

□ 중등 직업교육 참여자 관리 측면의 효율성

○ 청소년 관리에 필요한 소요 인력 및 노력이 성인 초청장학생에 비해 필요 경비가 좀 더 요구되는 경향이 있음

- 사업 대상이 미성년자임에 따라 성인 연수생과는 달리 학업과 생활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함

- 미성년자의 경우 비자부터 현지 체류에 관한 책임이 학교 측에 있으므로 담당 교사 이외에 개도국 현지에서 파견된 지도교사 등 추가적인 관리 인력의 지원이 필요.

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우리 지원 지속가능성

○ 중등 직업교육 초청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원, 지원 방법에 대한 우리국민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개도국의 발전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중등직업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개도국 청소년의 수용력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더불어, 신남방국가 협력예산의 증가와 장학사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확대 계획(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은 물리적 지원 지속성을 강화하는 요인임

- 반면, 외국학생 비중이 늘어나면 우리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개도국 청소년 장학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우리나라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 등이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됨

- 개도국의 경제개발 상황과 주력 산업의 변화로 전문대 등 대학수준의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로 인하여 사업초점이 변화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정치적 협력관계 변화 또한 지속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래 지속가능성

○ 우리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독일, 호주 등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특성화고의 비교우위를 강화하고 유학생에 대해서 유상교육(등록금 징수 등)의 형태로 전환이 필요

- 우리나라 특성화고 직업교육 잉여시설을 개도국 청소년의 학업 및 기술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직업교육 교사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해 개도국 청소년에 특화된 지도 역량 제고 필요
- 특히, 우리는 경제·사회 협력이 활발한 신남방,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포지셔닝이 필요
- 향후, 호주와 같은 TVET 분야 유학사업 운영사례와 같이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TVET 시스템의 글로벌화 촉진과 동 지원에 대한 국내의 동의도 용이할 것으로 사료 됨

6. 영향력(Impact)

□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환경 변화

○ 유입된 선진 기능·기술 인력의 자국 내 인적교류를 통한 사회적 반향으로 개도국 직업교육 시스템의 체질 변화

- 해외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자국 산업계에 진출한 인적자원이 자국 산업변화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례(Perna, Orosz, Jumakulov, 2015)와 같이 직업교육 시스템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
- 카자흐스탄의 해외 장학 지원 사례에서 관찰되듯이, 해외 유학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이수하고 귀국한 인적자원은 자국민의 이전과 다른 국제적 시각 형성 가능(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우리 중등 직업교육의 장기간 참여를 통해 보유한 선진 직업기술은 물론, 우리 직업교육 시스템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산업계 및 정책담당자들과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개도국 직업교육 시스템과 환경 변화에 영향

□ 세계화로 인한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개도국 대응력 강화

○ 첨단기술 수용 및 세계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반한 중등 직업교육은 개도국 청소년의 첨단기술 접근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귀국 후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자국의 대응역량 강화

- 급변하는 세계시장과 기술의 도입을 적시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기술교육 체계를 개발도상국 청소년이 경험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도입이 가치사슬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 귀국 후 자국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에 참여하며 가치사슬 변화의 영향에 대한 개발도상국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

□ 우리나라의 권역별 경제발전 파트너십 강화

○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고용된 중등직업교육 장학생이 대상국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 대상국 간 경제발전 파트너십을 강화

-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중등 직업교육 장학생 고용을 통해 기업의 발전과 대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진출기업과 고용된 장학생을 중심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양국 간 협력적 경제발전을 강화

- 우리기업과 중등 직업교육 장학생으로 성장한 개도국 산업의 지역별 거점을 연결하여 권역을 형성하고 우리나라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술·경제 파트너십을 구축·강화

-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개도국 엘

리트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도국1-개도국2 등 간 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개도국 권역 간 인력교류에 기반한 상호 경제 발전을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

7.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우리 측 지원 타당성 분석 종합

□ 사업 구체화를 위한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점과 여건을 종합

○ OECD DAC 5대 기준에 따라 우리 지원 타당성을 다음 <표 4-1>과 같이 분석·정리함

<표 4-1> OECD DAC에 기반한 우리나라 지원 타당성 분석내용 종합

기준	주요 고려사항	판단 내용
1. 적절성	① 활용 가능한 직업교육 시설이 많음 ② 우수 직업기술 교사 보유 ③ 이미 북방 교포 청소년 자녀 초청 직업교육 경험 보유 ④ 개도국 대상 직업교육 경험이 비교 우위에 있음 ⑤ 개도국 직업교육분야 지원 ODA가 무상원조 사업으로 오랜 기간 추진되고 있음 ⑥ 신남방 정책 등 대외협력 정책이 TVET분야의 장학사업을 포함	○ 우리나라 직업교육 (인적·물적)인프라는 개도국 숙련기술인력 양성 수요에 적절한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중등 직업기술 장학사업 이행을 위한 자원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가 준비되어 있음 ▷ 사업 이행을 위한 적절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음
2. 효과성	① 우리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강화	○ 중등 직업기술 장학사업의 효과 확보를 위한

	를 위한 직업교육 실시 ②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제협력 확대기반 마련 ③ 개도국내에서 한국 직업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비교적 높은 통용성 ④ 우리나라 학생 및 개도국 학생간 미래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국내 여건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 개도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한다면 효과성에 매우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추진에 의한 효과성이 매우 높게 기대됨
3. 효율성	① 성인 장학사업에 비해 저렴 ② 기존 직업교육 시설 및 교원을 이용한 효율적 기술 인력 양성 ③ 성인 대상 장학사업에 비해 청소년 대상 사업특성 상 생활관리 및 학사관리 등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요구	○ 단기간 내 개도국 양질의 기술 인력은 양성하는데 효율적일 뿐 아니라 성인 장학사업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분석 ▷ 사업 대상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사업 시행 시 생활관리 및 학사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함을 관련 사업 사례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높은 수준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4. 지속가능성	① 활용가능한 직업교육 시설이 많음 ② 우수 직업교육 교사 보유 ③ 신남방 정책 등 대외협력 정책이 TVET관련 장학사업을 포함 ④ 중장기적으로 국내 특성화고의 비교우위를 강화한 유상교육(등록금 징수 등)의 형태로 전환 ⑤ 무상으로 시행될 개도국 청소년 장학사업에 대한 비판	○ 국내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의 참여로 동 사업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 ▷ 중장기적으로 유상교육을 통한 개도국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무상 장학사업 이행에 대한 비판 및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속가능성 확보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
5. 영향력	① 시장변화에 민감한 국내 중등 직업교육은 첨단기술 접근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도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단 ② 우리기업과 고용된 중등 직업교육 장학생이 대상국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예상 ③ 우리기업과 중등직업교육 장학생 출신 개도국 숙련 기술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과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와 동반 성장 기반 마련	○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 특성 및 기업의 해외진출 상황은 본 장학지원사업의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된 것으로 분석 ▷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분야 장학사업의 영향력은 첫째, 수출주도의 한국경제특징과 둘째, 개도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관점 등에서 볼때 높은 수준으로 판단

○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제별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여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적절성과 효과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효율성의 경우 청소년 대상 장학사업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방교포 자녀 사업에서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성인 장학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식별된 사업관리 측면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효율성은 보통수준으로 판단
-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적절성과 효과성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측

8. 소결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이 설정한 ODA 지원 5대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고찰하였음

○ 적절성: 산업인력의 부족과 인력 양성이 시급한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발달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은 타당하며, 개도국의 열악한 직업교육 여건을 기 구축된 우리의 시설과 인적 역량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효과성: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은 선진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한국기업과 연계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예측되며, 장학생의 강화된 직무수행역량을 통해 자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직업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 효율성: 개도국 현지의 TVET 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내로 초청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국내에서 개도국 학생을 초청하여 양질의 직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기 구축된 중등직업교육 인프라를 사용하면 투자금액의 절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청소년의 학업 및 생활 관리는 성인 초청장학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지속가능성: 우리나라의 유휴 중등단계 직업교육시설과 교사 등의 활용 차원과 신남방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개도국 학생의 유치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나 동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속적 동의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국내의 도전을 고려할 때,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특성화고의 비교우위를 강화함으로써 개도국 유학생에 대해서 유상교육(등록금 징수) 실시

및 유학사업 형태로의 장기적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영향력: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개발도상국 중등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의 국내 이행 여건을 상기와 같이 OECD DAC 5대 주제에 따라 검토·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함

○ 연구진의 판단결과 동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은 높으나 적절성과 효과성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

○ 반면, 효율성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의 특성과 이미 시행된 개도국 지원 TVET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등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4개의 분석기준에 비하여 그 타당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는 중간 정도로 판단

제5장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1. 추진 방향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추진방향 설정 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먼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SDGs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

○ 즉,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유네스코가 표방하는 SDGs에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잘 부합함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방향과 전략, 내용,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이 필요

□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우리정부의 무상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현재 우리정부의 ODA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하되 특히 신남방, 신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동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 현 정부의 ODA 정책추진의 핵심사항인 신남방, 신북방정책의 기조하에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이 설정되어야 함

○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 등 TVET 관련 학교 교원과 시설 등의 역량이 초과 공급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유용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부,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

여야 할 것임

○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년 전부터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또한 유사한 사업을 2020년에 파일롯 사업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리고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 3자가 참여하는 "(가칭)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책대화를 시작하여 ①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② 상호 협력할 내용과 역할분담 및 사업내용의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TVET 분야에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므로 유네스코의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①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② 한국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기초학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③ 기능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전문가로서의 경력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

○ 학생 선발을 위해 개도국 직업교육 관련 담당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함은 물론 개도국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개도국진출 한국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네크워크 구축·운영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시행 중인 북방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조사·분석한 결과 우수한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력을 보유한 학생의 선발 및 기능기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①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성공적

인 이수와 ②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특성화고 졸업생으로서 정상적인 진로선택이 가능

- 특성화고에 대한 우리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필요

○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개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귀국 시, 출신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4]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후 출신 개도국으로 돌아가 우리 진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 경험을 쌓는 동시에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과 협력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우리나라의 특성화고에서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출신 개도국으로 돌아가서 진출한 한국기업에 우리나라에서 학습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아세안 등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인력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도국 근로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동시에 이들의 불법체류가 한국사회에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졸업자는 우선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당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한국기업과 개도국 졸업생, 그리고 개도국 정부와 우리정부 간 윈-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기획

4)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해서 배출되는 개도국 졸업생이 해당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하여 현장 직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 학생과 한국진출 기업간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한국진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1) 개도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2) 선진국 기업이 운영하는 개도국 현지 기업 등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개도국 현지 기업에 대한 취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 첫째, 개도국에서 학생 선발 시 한국에서 학습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본인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고,
- 둘째,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한국기업과 개도국 학생을 연계하며,
- 셋째, 한국에서 유학 기간 중 일시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정례적인 대화 등을 통해 회사와 학생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사전에 형성하여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

○ 이상과 같은 개도국 한국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유사한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동시에, ② 세금으로 운영되는 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여섯째, 우리나라 유학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에 근무하여 일 경험을 쌓고 한국의 공과대학(원) 등 고등교육 기관으로 후진학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관을 통해서 경력경로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협력의 key player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에서 약 3년간의 현장경험을 쌓은 경우 한국 대학에서 준학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개도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의 한국 본사 등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독일은 조선업에 청년인력의 유입을 위해서 듀얼시스템 이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엔지니어 학위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1) 듀얼시스템을 통해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2) 회사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드는데 필요한 현장실무를 이해하는 엔지니어 인력의 양성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조선소의 지원으로 엔지니어 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학습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조선소에서 근무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이것을 어길 경우 해당 비용을 반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대학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다양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해당 개도국 학생은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한국과 해당 개도국 간의 중계무역 등, 한국과 연관된 비즈니스를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학경험을 가진 개도국 현지 인력은 KOICA, EPS 센터, 한국문화원 등 우리정부가 운영하는 개도국 지원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한국 관련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한국의 많은 대학(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개도국 등 외국 유학생 유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교육부 역시 개도국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 개도국 현지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일 경험을 체득 → 한국 대학(원)의 학위 취득 등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분야의

경력경로를 개발하는 방식은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2. 추진 전략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상기의 방향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먼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 동 사업에 참여할 의도를 갖고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폭넓은 「다자간 협력 플랫폼」 형성 필요

○ 우리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중등단계 TVET에 초점을 맞춘 ODA 사업을 시행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경험공유와 새로운 시도와 관련된 아이디어 등의 점검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 왜냐하면 유네스코는 TVET 분야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과 전 세계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동 사업의 관계자 및 협력 기관 간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대내외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해당 의견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외교부, 기재부, 국회 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정책의 주관부처, 시행기관, 협력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① 유사 사업 간 중복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② 구체적으로 사업의 기획과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세계획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③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유휴 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의 추진을 통해 개도국과 우리정부 간 윈-윈이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책 형성과 추진에 필요한 수준의 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둘째,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등이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고려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적 변수(필요성 관점)를 반영하여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유사 사업 간 차별화를 통해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 이때 기존 사업이나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추진 방식 간의 차이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

- 첫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유네스코 기반 다자간 협력사업이라는 추진방식의 차이
- 둘째,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출신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한국에서 유학한 기간만큼 근무하여 졸업생과 한국회사 간, 개도국과 우리정부 간에 협력을 향상하여 윈-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SDGs 달성에 기여
-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협력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등을 강조할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등 학교의 유휴 인력과 시설의 활용차원, 2) 특성화고등학교의 국제화를 통한 이미지 쇄신 및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 교육부는 신남방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해서 개도국 학생을 초청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개도국 TVET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TVET 학교 졸업생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짐

○ 그러나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SDGs 관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을 통해서

- 첫째,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개도국의 부족하고 수준이 낮은 TVET 역량을 보완하고,

- 둘째, 이를 통해서 한국 중등 직업교육의 우수성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TVET 시스템을 개도국이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토록 하여,

- 셋째, 미래에 한국 TVET 시스템의 수출여건을 마련하고 개도국 학생의 한국 TVET 기관으로 유학을 촉진하며,

- 넷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TVET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려는 목적을 설정한 바, 서울시교육청 등의 사업보다는 더욱 포괄성을 가짐

□ 셋째,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유네스코의 전 세계적인 플랫폼, 예들 들어 I-hub 등과 같이 개도국 지역거점 TVET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HQs는 물론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등 지역사무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추진계획과 내용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유네스코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모집

○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개도국 현지에서의 취업하여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유네스코의 전문성과 개도국 현지 협력 네크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 실제로 한국 교육부가 트러스트 펀드로 지원하고 있는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프로젝트를 통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TVET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유네스코의 TVET 분야 개도국 인프라는 지역사무소를 기반으로 매우 잘 구축이 되어 있음. 이를 활용할 경우 한국정부나 기관 단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개도국 정부와 현지기관의 매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동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한국 정부의 ODA 사업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추진 시 유네스코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음.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선진국의 직업교육간 접점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반추(reflection)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위상을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대등한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

제6장 ▌요약 및 제언

1. 요약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 ‘개도국 대상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기능을 SDGs의 관점에서 볼 때 중등 직업교육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이 SDGs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시행여건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중등직업교육의 품질을 제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이 개도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

-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의 양성을 어렵게 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이 지속되는 원인을 제공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선진화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도국 중등단계 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

-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TVET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국에서 농림, 건설, 기계,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 카자흐스탄의 ‘해외유학지원을 통한 인적개발확충 정책’의 일부 성공 사례(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유학을

통해서 자국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외 유수기업 유치와 해외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접근관점에서 본 연구주제의 타당성을 고찰할 수 있었음

○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노동이동의 개념은 냉전 시대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Basu, 2000),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력과 기술자격의 보유는 개발도상국 산업을 건설하고 개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조정윤, 2012)

○ 특히, 발달기 청소년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임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성인 학습자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사료(Kristensen, 1998)

○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세안 지역과 인적교류를 다각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장학사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런 맥락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확대 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

□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 첫째, 북방지역 교포자녀 초청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대한 시행경험을 20년간 축적해 온 바에 따르면 동 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어 능력,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초학력을 갖춘 학생의 선발이 중요

- 현재 우리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목표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목적과는 격차가 있는 상황

- 따라서,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초청 장학생 선발 당시부터 직업교육의 목적에 맞게 경력개발 경로에 관심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선취업-후진학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특성화고의 운영취지에 부합

- 향후 진로 개발과 경로 선택에 충분한 안내 및 지도가 학생선발 및 지도 과정에서 매우 필요

○ 둘째, 중등 직업교육 단계의 국제협력 활동 및 ODA 사업에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이미 수립·추진 중에 있음. 한편, 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 협력형태로 해당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화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구축된 국내 직업교육 인프라와 시행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학생초청 ODA 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매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모멘텀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ADB이 협력을 통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시행을 구상 중에 있고 국제기구의 경험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셋째,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본 연구주제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구체적 계획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

-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중등 직업교육의 국제협력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부는 그간 EAS(East Asian Summit) 사업의 수행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추진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

- 향후 교육부를 주축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 개도국과의 협력은 확대·심화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개도국 관련 부처에서는 선진국 TVET 체계를 직접 경험하며 학습과 근무경험을 쌓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개도국 중등학생 초청 방식의 ODA 직업교육사업이 개도국의 요구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개발도상국 중등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OECD DAC ODA 5대 주제(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성)에 따라 검토·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 첫째, 연구진의 판단결과 동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 둘째,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은 높으나 적절성과 효과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

○ 셋째, 효율성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 사업의 특성과 이미 시행된 개도국 지원 TVET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등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4개의 분석기준에 비하여 그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우리정부가 지원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SDG 4에 잘 부합하며 유네스코의 동 목표(SDG4) 전문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방향과 전략, 내용, 방법의 제시 필요

○ 둘째, 우리정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무상 ODA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현재 신남방, 신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ODA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 셋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참여의향이 있는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동 사업에 대한 정책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넷째, 본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1)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2)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기초학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3) 기능기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경력개발경로를 계획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도국 직업교육 관련 담당부처, 개도국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문화원, 개도국진출 한국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 네크워크 구축 운영이 필요

○ 다섯째, 우리 중등 직업교육 이수 후 자국으로 귀국한 학생이 자국 내 진출 우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는 동시에 동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프로그램 마련 필요

○ 여섯째, 중장기적 협력 관점에서 장학생이 유학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자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게 한 후 한국의 공과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으로 후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력경로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교량(key player) 역할을 부여

□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교육부, 교육청 및 동 사업에 참여할 의도를 갖고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협력 플랫폼 형성 필요

○ 둘째, 교육청, 교육부 등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적 변수(필요성 관점)를 반영하여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활용하고, 유사 사업간 차별화를 통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동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

○ 셋째, 유네스코의 전 세계적인 플랫폼, 예들 들어 I-hub 등과 같이 개도국 지역거점 TVET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책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HQs는 물론 유네스코 지역(방콕)

사무소 등 국가사무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국정부가 지원 가능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추진 계획과 내용 등을 마련

2. 제언

(1. 타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향상방안 마련)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로 제시된 내용 중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좀 더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음 수준으로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시행한 타당성 분석결과 적절성과 효과성은 매우 높은 반면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성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어 영향력, 지속가능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

○ 첫째, 지속가능성의 경우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있는 직업교육 담당부처인 교육부와 관련 부처인 고용부 등과 높은 수준의 정책대화를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

○ 둘째, 영향력 부분 향상은 유네스코와 협력을 통해서 이들이 이미 구축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극복하려는 접근이 필요

○ 셋째,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한계가 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동 사업 효과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5)]

5)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시 효과성과 효율성 간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결과 한 차원 높은 효과성을 확보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 즉, 효율성의 향상이 없이는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양자 간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맥락임

(2. 한국정부의 TVET 분야 ODA 사업 외연을 확장하여 이 분야 ODA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등단계로 TVET ODA 사업의 확대가 필요) 한국정부는 KOICA를 통해서 개도국 TVET 분야에 대한 지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주로 중등단계 이후의 TVET 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되어 왔으므로 TVET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시행관점에서 중등단계 TVET에 대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TVET 분야 ODA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접근이 필요

□ KOICA가 추진하여 온 TVET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 이러한 관점에서 동 사업의 외연을 중등단계까지 확대하여 한국이 지원하는 TVET 분야의 ODA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중등단계 이후 고등단계의 TVET 분야에 대한 KOICA의 지원이 주로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이라는 제목하에서 추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되고 있어 TVET 제도와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하여 TVET 분야에 대한 대 개도국 지원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변화되고 있음

○ 개도국의 중등 이후 TVET 분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취업률 향상을 통해 졸업생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TVET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중등단계로 TVET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중등 이후 고등단계의 TVET의 저변을 확대하여 중등 이후 단계의 TVET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

- 개도국을 지원한 TVET 분야의 많은 ODA 사업이 개도국 전체 TVET 제도와 정책 간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왕왕 해당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이 부족한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TVET 분야 지원정책 대상을 중등단계로까지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등과 고등단계를 연계하는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 분야 ODA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동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

(3. 유사 사업주체와 적극적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준비하는 사업간 차별화를 위한 노력 경주) 서울특별시의 북방 교포자녀 초청 직업교육사업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긍정적인 요소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교육부와 또 다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북방 교포자녀 초청 장학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과 관련된 선행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동 사업의 장점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 아울러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0년에 추진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준비하는 사업과 차별성을 유지하도록 함

○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는 기 추진하고 있는 선행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방향 및 내용 등과 차별화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을 마련하여야 본 연구의 사업화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비록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 등이 크지 않아 일정

규모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되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동 사업 참여 주체 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참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음

(4. 동 사업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유네스코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유네스코 차원의 협력사업화를 통해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의 지원과 협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추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정부와 개도국 정부 모두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등 유네스코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HQs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추진환경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의 추진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TVET에 대한 유네스코의 영향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

○ 사업추진 중간 및 마지막 단계에서 유네스코 HQs 혹은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사업의 결과와 교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유네스코와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의 시행은 한국 정부는 물론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형성에도 매우 중요

참고문헌

강명구. (2018). 신남방 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산은조사월보 2018. 3 제748호* pp64~75.

곽성일. (2018). 신남방 정책의 추진과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 *트레이드 인사이트 2018-8호.*

김덕기. (2014).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 강화': *The HRD Review* 9월, pp. 70~79.

김민규, 김정민, 이은정. (2015). 고교단계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참여자 인식분석: Q방법론의 활용, 교육 정치학 연구, 22:3. pp. 59-82

윤종혁, 이석희, 김진희, 김정래, 노형진, 김진하. (2013). *Sejong Inintiative-교육 ODA 로드맵 수립.* 한국교육개발원.

이남철, 정지선, 윤혜준. (2016).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지순, 전용일, 이광석, 이명선, 곽삼근, 손동희. (2018). *2018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6). 환경부.

조정윤. (2012). 노동이동과 자격의 역할.

조정윤, 오춘식, 정유성, 유길상, 김민규. (2019). '아세안지역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분야 대학원과정 운영 타당성 연구'.

최영종. (2018). 신남방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방안, '신남방 젖책의 전략환경 평가 및 추진 방안: 2018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pp.7~59.

ADB. (2019).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under the CAREC programme. Available from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526901/education-skills-carec

-program.pdf

Alhasan., & Tyabo, N. U. A. (2013). ‘Revitaliz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T) for Youth Empower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Journal of Educational and Social Research. Available from file:///Users/leeseongmin/Downloads/436-1754-1-PB.pdf.

Ai, S.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TVET Curriculum at upper Secondary Level of Cambodia and other 4 Asian countries, Korea Univeristy of Technology of Techno-HRD.

An exploration of Kazakhstan’s Bolashak program.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Development 40*. pp. 85~97. Available from file:///Users/leeseongmin/Downloads/1-s2.0-S0738059314001503-main.pdf.

Barrell, M., Teal, G., Gloet, M. (2005) ‘Culture and Globalization in the Curriculum: Theory, Cases and Practice’ : Journal of New Business Ideas and Trendes 2005 3(1). pp 1~8.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Mike_Berrell/publication/268329745_Culture_and_Globalization_in_the_Curriculum_Theory_Cases_and_Practice/links/56492fdc08ae54697fbe688e.pdf.

Basu, C. K. (2000). ‘Roles of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n Asia-Pacifi Region’ In International Confference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Asia · Pacific Region.

Baldauf, B., Hogarth, T. and Hoyos, M (2008). Going global? UK FE/TVET-opportuniti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University of Warwick. Available from https://warwick.ac.uk/fac/soc/ier/publications/2008/baldauf_et_al_2008_global.pdf

Edwin, O. M.(2016) Competency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A Fresh Green Leaf from the Australian Context for TVET in Africa. IR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Multidisciplinary Studies (ISSN 2455-2526), 3(3).

Available from: http://dx.doi.org/10.21013/jems.v3.n3.p23.

Global 2030 (2016), ‘Achievements and Unfinished Business of the Time-Bound MDG Targets, Berlin. Available from http://global2030.net/file/global2030mdg_targets.pdf.

Keeley, B. (2007). ‘What is social capital?’ In Human Capital. Available from https://read.oecd-ilibrary.org/education/human-capital_9789264029095-en#page1

Khan, U., Iqbal, T., Rehman, Z. U. (2019). Imapact of human capital on poverty alleviation in district Karak, Khyber, Pakhtunkhwa, ResearchGate, available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32978783.

Kingombe C. (2011).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from Experiencewith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Growth Center. Available from https://www.theigc.org/wp-content/uploads/2014/09/Kingombe-2014-Working-Paper-1.pdf.

King, K & McGrath, S.(2012). Education and development in Africa: Lessons of the past 50 years for beyond 2015. *In Conference Proceedings: CAS*(Vol. 50, PP. 6-8).

Kristeensen, S. A. (1998). Support for transnational mobility for young people, In “Mobility and migration of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specific implication for young people.

Krönner, H. (2005). ‘The Contribution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International Workshop on Workforce Development for The Knowledge Economy. Available from https://intervoc.de/seoul/docs/Kronner-ADBI-Seoul-Sustainable-Paper-2005-09-09.pdf.

Lahire, N., Johanson, R., Wilcox, R. T. (2011). Youth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in the Gambia, *World Bank.* Available from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160741468250273408/pdf/638450PUB0Exto00Box0361527B0PUBLIC0.pdf.

Likisa, K. D. (2018). Challenges and prospect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The case of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lumni students and hawas TVET college, adama, ethiopia. Available from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10.1002/cbe2.1163.

MDY Legal Internationa Development. (2015). Study of Legal Options for New TVET Facilities in Mozambique.

Moses K. M., Muladi., Wibawa, A. P. (2016). 'The Linkage between VocationalSchools and Industries Cooperation a comparison in Developed and DevelopingCountri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vailable from https://pdfs.semanticscholar.org/bdb0/b100073c6e3e3134c6beeba55cae347f7639.pdf

Paryono, P. (2015). Approaches to preparining TVET teachers and instructors in ASEAN member countries. Available from http://www.tvet-online.asia/issue5/paryono_tvet5.pdf.

Perna, L. W., Orozs, K., Jumakulov Z. (2015). 'Understanding the human capitalbenefits of a government-funded international scholarship program: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Available from file:///Users/leeseongmin/Downloads/1-s2.0-S0738059314001503-main.pdf.

Raihan, M. A. (2014). Collaboration between TVET institution and industries in Bangladesh to enhance employbility skilll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ical Research(IJETR)* ISSN:2321-0896, Vol2, Issue 10.

Schuller, T. (2001). The complementary roles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001.* Available from http://www.oecd.org/innovation/research/1825424.pdf.

Tassinopoulos, A., Werner, H. (1998). Mobility and migration of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In “Mobility and migration of Labour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ir specific implication for young people.

Thongsavath, T. (2014).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UNESCO-UNEVOC. (2016). Strategy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2016~2021). Available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5239.

UNESCO-UNEVOC. (2019). Promoting innovation in TVET July 2019, Bulletin issue 35. Available from https://unevoc.unesco.org/pub/bulletin_35.pdf.

United Nations. (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New York. Available from https://www.un.org/millenniumgoals/2015_MDG_Report/pdf/MDG%202015%20rev%20(July%201).pdf.

Wahba, M. M. M. (2010).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on and Training(TVET) Challenges and Prior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vailable from https://unevoc.unesco.org/e-forum/TVET_Challenges_and_Priorities_in_Developing_Countries.pdf.

국립국제교육원 (2019) www.niied.go.kr.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18). 신남방 정책 추진 전략.

한국국제협력단 (2015).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

한국국제협력단 (2018). 2018년 국가별 협력프로그램 예산기준.

한국국제협력단. (2019). www.koica.go.kr.

한국장학재단. (2019). https://happyedu.moe.go.kr.

부 록

[부록1] 면담 조사지
[부록2] 상세 면담내용
[부록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네팔 교육부 차관 면담내용
[부록4]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 타당성 조사 결과
[부록5]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연구 발표자료

부록 1. 면담 조사지

<서울시 교육청>

번호	질문요지	관련 질문
1	개발도상국 중등학생 직업교육 장학 사업 시행기관 지원 현황 ‘북방지역 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의 경우 연간 약 10~15명, 1998~2016년 기준 182명임. 연간 예산 25900만원(‘16년 기준)	A.전체 예산, 학생 1명당 지원 예산, 연간 지원학생 수 B.학생 선발 및 파견 절차 C.시행기관 선발 및 시행기관 훈련인력 교육 절차
2	중등학생직업교육 장학사업 시행기관 모니터링 방법 및 현황	A.해당 장학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설명(목표는 무엇인지? 평가 지표는 무엇인지?) B.해당 사업 모니터링 결과 공유. 참여 학생 및 내국인 학생 교육 만족도, 시행기관 해당 사업 수행(교육 성과) 평가 결과는 어떠한지? C.우수 사례 및 문제 사항 공유

3	장학사업 참여 학생 출신국가와의 협력 상황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중국 북경시 교육국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1994.06.17)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즈베크공화국 타슈켄트시 교육청간의 협력 계획에 관한 양해각서(1995.05.)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러시아 모스크바시 교육청간 교육협력에 관한 합의서(1997.05.14)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교류 방문 협약 사항(총무과-12959,2005.06.24)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몽골 울란바타르 시청간의 교육협약 체결(2006.10.2)	A.참여 학생 출신국가가 분담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B.참여 학생 출신국가는 장학생 현지 선발과 여권 발행 업무 등, 출국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해 주는 지? C.학생 유학 이전 시점, 진행 시점, 사후 관리 시점에서 참여학생 출신국 정부가 본 사업에 대해 담당하는 부분은?
4	장학사업 운영 애로 사항	A.장학사업을 관리하는데 있어 애로 사항을 자유롭게 설명 B.시행 기관과의 협력 및 관리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C. 사업의 전 과정에서 협력국가 및 기관 간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5	장학 사업 졸업생 및 귀국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 현황	A.졸업생 및 귀국학생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B.졸업생 및 귀국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동창회 구성 및 연례회의 지원 등)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요청.
6	국내 타 중등 직업교육 기관 장학사업 확대 요구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기숙사를 보유한 전국 특성화고 책임자 및 교육부·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는 대다수(72.7%)가 사	A.현제 시행 중인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대한 타 교육기관의 반응은 어떠한지? B.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 교육기관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업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약 90%이상의 특성화고가 참여를 희망함.	C.교육청은 향후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타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7	개발도상국 중등학생 직업교육 장학 사업 시행기관의 관리상 특이점	A.장학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요청 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B.장학사업 시행기관을 관리하며 가장 많이 강조한 사항은 무엇인지?
8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의 개발도상국 타 지역으로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은	A.개발도상국 중등학생 직업교육 장학사업이 기존 '북방지역(교포자녀)'에서 타 지역의 일반 개도국 청소년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B. '북방지역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역량을 통해 타 개발도상국가 청소년의 직업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지?

<경기공고 ODA 장학사업 참여 교직원>

번호	질문 요지	관련 질문
1	장학 사업 참여 학생의 현황 및 관리 상황 2016년 기준 총 182명 졸업 및 재학(‘16년 40명 재학), 여성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인해 여학생 없음, ’16년도 예산 25억9천만원, 보호자교사 3명(학년당 1명)	A.참여 학생 현황(재학생 수, 졸업생 수, 남녀 비율) B.참여 학생 관리 상황(기숙 여부, 관리 교사 배정 여부, 생활비 및 학비 등의 비용 지원 현황 등) C.한국어 교육 및 학업 성취도 관리 방법
2	장학사업 참여 학생의 유학 목적 중등 직업교육 목적은 청년의 조기 경제 활동 및 산업 참여에 무게가 있음	A.참여학생의 유학 목표는 무엇인지? B.참여학생의 유학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C.참여학생의 유학 목표에 대해 조정을 하는지? 예컨대, 상급학교 진학→취업, 취업→상급학교 진학
3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A.개도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어떠한지? B.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C내국인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평가(시험)에 (내국인 학생들과, 혹은 유학생 별도로) 참여하는지? 만약 참여한다면 결과는 어느 정도 인지? D.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 인지?

4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내국인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	A.내국인 학생들이 장학사업 인여 학생들로 영향을 받는다고 관찰되거나 판단된 사례에 대한 소개 B.내국인 학생들의 수업 진도에 대한 영향을 받는지? C.내국인 학생들이 장학사업 참여학생들의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관찰되는지? D.장학사업 참여 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활동(외국어, 문화 동아리 활동)이 있는지?
5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국내취업과 진학 현황)	A.참여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대학진학, 취업, 귀국 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2015학년도 졸업기준 79% 국내대학진학(111명), 외국 대학 및 귀국21%(국내29명)	B.재학기간 참여 학생들의 진로 조사를 시행하는지? 시행한다면 대체적인 희망 진로는 무엇인지? C.학교측은 취업 정보 및 진학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는지? D.참여 학생들의 학사정보는 내국인 학생의 기록과 같이 장기 보관 되는지?
6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귀국 후 본교와의 네트워킹 현황	A.참여 학생 졸업 후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있는지?

		B.참여 학생과 소통하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있다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은 활발한 편인지? C.참여 학생 출신국의 모교 동창회 혹은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조직되어 있는지? D.참여 학생의 졸업 및 귀국후 본교에 연락방법은 주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는지?(전화, 우편, 이메일 등)
7	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의 산업체 실습 참여 현황	A.참여 학생들이 산업체 실습에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B.산업체 실습을 받고 있는지? C.실습 전 산업체 측에 장학생들에 대한 사전 설명과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실행하고 있는지?

		D.참여 학생들의 산업체 실습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산업체 실습을 통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지? 산업체 실습이 어렵거나 두렵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지? E.실습 참여를 통해 졸업 후, 국내 채용되는 경우나, 귀국 후 취득한 학위와 기술을 통해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8	국내 산업체의 개발도상국 장학생 실습 참여에 대한 평가	A.산업체가 참여 학생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실습 성취도는 어떠한지? B.산업체가 장학생 지도에 (언어 및 문화 등에) 어려움을 있는지? C.산업체의 장학생에 대한 주관적 평가

		는 어떠한지? D.산업체가 장학생을 위해 특별히 드리는 노력과 비용이 있는지(통역 고용, 개별관리에 소모되는 비용 및 노력 등)?
9	장학사업 참여 학생의 이탈 및 귀국 사례	A내참여 학생이 우리나라 직업교육 환경에 적응하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B.참여 학생의 적응 실패로 인해 이탈하거나 귀국한 사례에 대한 설명 C.참여 학생의 귀국이나 이탈이 잔류 학생이나 내국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지? D.참여 학생의 과정 중 이탈이나 귀국 시, 개인 학적 등의 정보 전송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10	개발도상국 학생 초청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A.개발도상국 학생 초청사업의 지속 가능성 증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항은? B. '북방지역 교포자녀 초청 기술 교육' 사업의 후속 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C.향후 우리의 중등직업교육 시스템을 통한 유학생 유치(유상)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경기공고 ODA 장학사업 참여 학생>

번호	질문 요지	관련 질문
1	한국 중등직업교육 과정 참여 동기	A.한국 중등직업교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B.동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상급학교 진학인지?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2	한국 중등직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	A.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백분위%로 표현하면)? B.현 교육과정을 이수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수업 내용, 수업 문화, 한국어(매개어)) B.출신국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정보는 현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유용한지? C.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부가적으

		로 노력(자율 학습, 과외 등)하거나 지원 받는 사항(한국어 교육, 보충 교육 등)이 있는지?
3	한국의 중등직업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적절성과 유용성?	A.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 내용이 학생 개인의 참여 목적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목적에 맞게 설명(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따라) B.현재 배우고 있는 수업내용을 출신국에 있는 동료(친구)들도 같은 수준으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 C.취득한 자격증이 있거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지? D.취득하거나 준비 중인 자격증에 대한 어느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는지(상급학교 진학 가산점, 국내 및 귀국 후 취업시 필요)?

4	한국 학생들과 친교 상황	A.전반적인 친교 상황에 대한 설명 B.장학사업 참여 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 C.장학사업 참여 학생간의 교류는 어떠한지? D.장학사업 참여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학생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5	한국 생활을 하며 가장 불편한 점과 좋은 점	A.한국생활을 하며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

		B.한국생활을 하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C.한국생활을 하며 불편했거나 좋지 않았던 경험이 바뀐 경험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는지? 그렇다면 경험을 설명
6	산업체 실습을 통해 배운 기술과 경험의 유용성	A.산업체 실습에 참여하고 있는지? B.산업체 실습은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다면 이유에 대한 설명 C.산업체 실습은 본인이 원하는 산업체와 기술이 반영 되었는지? D.산업체 실습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산업체 실습을 원하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였다고 생각하는지?

7	교육과정 및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A.교육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로 누구(학교 및 선생님, 출신국 동료, 부모님, 한국인 동료, 출신국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그 이유는? B.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경험을 설명
8	졸업 후 한국의 중등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의 활용 계획	A.상급학교 진학 희망자의 경우, 중등교육에서 전공한 분야를 심화할 계획인지? 전공한 분야와 무관하게 상급학교(국내 및 출신국가) 전공을 선택할 계획인지? B.상급학교 진학보다는 한국 내 취업에 관심이있고 교육과정에서 전공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어

		도 상관 없는지? C.졸업 후 귀국하여 출신국가 기업(혹은 한국 진출 기업)에서 취업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어도 상관 없는지?
9	‘북방지역 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사업에 대해 자국 후배에게 참여 권유 여부	A.본인이 참여한 동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B.자국 후배에게 동 사업 참여를 권유하거나 상담해줄 의향이 있는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번호	질문	관련 질문
1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장학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A. 중등교육 장학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고 있는지? B. 다른 지역이나 교육기관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 하는지?
2	신남방 정책과 관련한 교육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A.전반적인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 B.중등교육 장학사업의 도입 및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

<ODA 사업 주무 이행기관 >

번호	질문	관련 질문
1	귀 기관이 이행 중인 중등직업교육 연수사업에 대한 설명	A.중등직업교육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 B. 중등학생을 초청 연수 경험이 있는지?
2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초청사업에 대한 의견	A. 오랜 개도국 연수 및 장학사업 경험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초청사업에 대한 의견

부록 2. 상세 면담내용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 시행 기관(경기공고)

담당 교직원

2019.11.12

4개 국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 달라요. 몽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입학하여 1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데, 중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 배우면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는 2~3학년 아이들이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경기기계공고는) **학생 선발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학생을 선발하고 배정되서 온다고 하면, 공항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오는 과정부터 시작이거든요. **학생을 선발하는 건 서울시 교육청하고 현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선발해서 저희에게 명단 주면 그때부터 저희 업무가 시작이에요.** 현지에서는 교육원이 선발하는지 문화원이 선발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1년 한번씩 가정 방문 형식으로 학생 출신국을 방문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 선발이나 그런걸 다 해주더라 구요.

교육청 예산으로 학생 먹고 자고 교육하고 용돈도 한 달에 15만원 정도 지급하고요. 원래 15만원인데, 옛날에 다 줬는데 이제는 성과급 식으로, 한국어 능력을 따지 못하면 일정부분 감하고, 생활관에서 태도가 불량하면 감하고요. 학생들 관리하는데 제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저희가 학생 보호자 겸, 담임 겸, 부장(본 직위 업무) 업무 까지 할려다 보니까 업무로드가 굉장희 걸리거든요. 학생들이 문화가 달라서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방 쪽은 18세가 넘으면 성인이 하는 건 다 하거든요. 흡연이나 음주나 하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안돼죠. 거기는 성생활을 한국보다 훨씬 빨리 시작하기도 하고요..... 우즈백 중등 여학생이 남학생을 찾아온 경험이 있는데요. 둘은 현지에서부터 아는 사이였고요. 학부모와 상담하고 지도하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 1년 정원이 12명이었는데 2명 정도가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명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여서 취소가 되었고요. 부모가 불법체류자 이면 비자를 안내어 주더라구요. 한명은 참가 포기를 했어요.

다른 과목보다 국어 수업 시간이 많고요. 국어 선생님과 한국어 시간 강사 선생님이 학생들 (한)국어 지도를 하는데요. 한국어 강사 선생님이 학생들 한국어 기초를 가르치고 학생들 수준이 올라가면 국어선생님이 국어를 지도하시는데요. 국어 선생님하고 한국어 강사 선생님하고 반을 나누어서 분반지도를 합니다. **국어 선생님이 상급반을 지도하시고 하급반 아이들이 한국어 강사가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한국어를 하는거에요.**

학과배정은 저희가 유학생들이 참인할 수 있는 4개 과가 있어요. 학년별로 4개과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국어 능력 5등급이 되면 일반(내국인 재학생)반에 가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명이 (일반반에) 가서 수업을 했는데....그런데 아이들이 일반반에 가는걸 안 할려고 해요. 옛날에는 대학도 전공쪽으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전공쪽으로 안하고.... 요즘에는 대학도 한국어 능력만 갖고 애들을 뽑다 보니까 애들이 전공 참여를 안할려고 해요.** 작년까지는 무조건 보냈는데 올해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학과로 보내고 그렇지않으면 유학생 반에 있죠. **중국 동포나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면 일반반에 가서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소통능력이 떨어지니까 일반 반에 가서 수업 받는걸 좀 부담스러워 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국어능력) 5등급을 안딸려고 해요.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한국어 능력 5등급이라도 안따면... 그래서 일반 반 참여는 강요하지 않는데신 한국어 능력 5등급은 따라고 하죠. **이 학생들은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대학 갈 학생들인데 5등급도 안따고 대학가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대학을 진학하면서 학생들 반정도는 경제 경영등 전공과 관련없는 과에 가고, 반정도는 전공으로 가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꿈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 안돌아 가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거고, 그게 아니면 자기 나라로 진출하는 대기업 지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대학을 들어가는데 (한국어 능력) 4등급 정도면 인서울 대학교는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등급 받는 애들은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요. 중대, 외대, 시립대...그리고 근처에 있는 과기대도 많이 갑니다. 옛

날에는 서울대도 많이 가고 그랬다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지가 20년 됐는데요. 90년대 말에 북방교포,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있는 우리 교포 자녀에게 기술 교육을 해주자는 취지였는데요.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돌아가면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할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상황이 변했고 북방교포의 삶도 많이 나아졌죠. 우리 아이들이 이전 우리 세대와 다르듯이 그 아이들도 다르죠. 러시아에 방문을 갔을 때 부모들은 근무 시간이 6시에 끝나면 이일 저일 많이 했는데, 우리 애들은 안한다고 하면서 답답하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똑 같죠. 전 세계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예치해야 되는 돈도 있는데 다 (예치) 합니다. 아이들 부모들이 한국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죠.

아이들이 여기서 대부분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자국에서 취업하거나 해봐라 하고 조정한다던지 하는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원래는 중등기술 교육을 한다는 걸 알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선배들이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해 있고 그런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살면 보는게 있기도 하고요.

학생들을 공동을 이용하는 SNS 같은 건 없고, 자기 지역 학생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학년으로 입학하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4학년 학생까지는 서로 연결이 되고 교류하는 거죠.

작년에 막심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일반반에 들어가서 (내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많을 활동들을 했는데... 기능 올림피아드 나인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왔는데 그 학생이 통역도 하고, 착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했는데, 올해에는 눈에 확 띄이는 아이들이 잘 안 보이네요. **일찍부터 (내국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어울리고 하기도 했고, 누가봐도 바른 학생이라는게 보였죠. 그런 학생이 (내국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학생들의 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학과 교육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저녁때 학생 지도 문제라던지, 겨울방학에는 잠시 귀국을 하지만, 여름 방학 학생 관리나 지도라든지 모든걸 감당해야 하는게 부담이 엄청난 거죠.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산업체 실습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원하는 아이들도 없고요. 그래도 아이들 실습 관련해서 연구해보고 있는데, 안산에 가면 일주일간 입소해서 외국인들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취업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름 방학이 짧기는 해도 여름 내내 먹고자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고 절반 정도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요.

학생들이 빨리 들어오면 D4비자(연수) 갖고 들어오는데 한달만에 비자가 종료가 되요, 그러면 연장해야하는데 3개월 전부터 연장 작업을 해야하는데 선생님들이 서류 작성부터 일일이 다 붙어서 처리해야 되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1년짜리(비자) 나오는데 그런 작업을 졸업할 때 까지 해야하니까 업무가 많죠.

교사 한명이 학생들을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렵죠. 한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면 남아 있는 학생들 관리해야 하니까요.

원래는 학년 당 12명인데 현재 23명(1학년 9명, 2학년 7명, 3학년 7명)이지만 이제도를 알고 있다면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 에요.

학생들의 졸업후 경로 추적은 대학생까지는 되고 있는데 귀국후에는 되지 않죠. 하지만, 앞으로 유학생 홈커밍 데이 같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문화체험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요.

학부모들은 부모나 친척이 있는 경우는 찾아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말씀 드릴 수 는 없겠네요.

한국어가 잘 돼서 일반반에서 공부하며 자격증 따고하며 잘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누군가 잘 되는거 보면 그렇께 따라 가려고 할텐데....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잘 어울리고요. 몽골 아이들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좀 통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중국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교류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데 빠른 경향이 있고요. **4개국 아이들은 선후배 관념이나 문화가 없으니까 학년단위 보다는 나라 단위도 모이는게 편한 것 같애요.**

이 사업을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우수한 학생들을 잘 뽑아 와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가 선발에 관여하자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술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올수 있다면 좋죠.

학생들의 4개국 커리큘럼이 다 달라 우리 직업중등교육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을 다 고려하여 유학생교육을 이행 할 수 없어요. **예컨대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공교육에서 영어를 안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배우는 거죠. 학생들 교과목 시험도 다 보고 하지만, 대학 진학을 할때는 성적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우선이 되니까요. 1학년 한국어 수업시수가 주에 17시간 정도 합니다.** 수인 같은 경우는 내국인 아이들 중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실습을 다 들여 보냈는데..... 실습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 사업의 목적을 살려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목, 예컨대 드론 같은 걸 넣어서 즐겁게 실습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3년 정도 공부하면 한국어가 어느 정도하지만 수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는 아이들만 그렇게 하고요. 진로를 이쪽(기술)으로 할 아이들이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서울시교육청

2019.11.12

서울시 교육청은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사업을 2018~2022년 착수하였으며, 서울시 25개 구, 80개(순수 특성화 70개, 산업정보 6개, 마이스터 고 4개) 특성화고에 국제화교육을 지원 중에 있음

동 사업은 10대 중점 과제 즉, ①해외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초청 직업교육 확대, ②특성화고 학생 다국적언어(외국어)교육 확대, ③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확대, ④서울 특성화고 우수 직업 교육 모델 전파, ⑤학생 및 교원 직업기술 교류 확대, ⑥국제화 전문기관과 MoU체결 및 연계 협력, ⑦특성화고 재직 교원 국제화 교육 지원단 구성, ⑧학교별 해외 자매결연 확대, ⑨서울 특성화고 국제화 교육 지원 자문관 위촉, ⑩특성화고 국제교류 홍보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북방 교포 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은 연간 예산이 3억 3천만원 규모로 약 20년간 시행되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남방 개발도상국 청소년으로 확대 계획을 갖고 베트남,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청소년을 2021년 초청 할 계획임

북방교포 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은 연간 예산이 3억 3천만원으로 경기공고에서 진행 중 입니다.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20년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성과 측면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후 귀국을 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볼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경험을 가지고 남방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번 국제화 사업을 계기로 베트남, 방글라데시, 동티모르에서 학생을 초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기숙사 문제로 2020년부터 방글라데시와 동티모르에서 학생 초청 사업을 착수하고, 실제 학생이 초청되는 시기는 (기숙사 등) 제반사항이 준비된 202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ADB와 협력하여 한 학년에 60명씩 3개 학년 180명의 동남아 학생 및 지

도교사를 초청하여 중등직업교육 실시를 계획 중인데, ADB 측은 올해 동 사업을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한국의 공무 절차가 있으니 올해 당장 착수 할 수는 없지요. 우선 구상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ADB가 내고 교육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자는 건데 2~3 개월안에 좀 더 발전된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중등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ADB에서 사업목적성과 관련해 난색을 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지원이나 국제적 취업 지원관의 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업기술을 배워 한국사회에서 점점 줄어가는 노동력을 채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선진 기술을 보급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국학생 비중이 늘어나면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들 일부는 왜? 시 교육예산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 데려다 공부 시키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 사례로 타 지역(강원도, 인천) 학생들 데려다가 서울에서 공부 시키냐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 시행 기관(경기공고)

외국인 학생 면담

2019.11.15

공부하려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언어 배우려고요. 몽골에서 좋은 말이라 더 배우고싶어서 참여했어요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건 언어와 문화가 많이 낯설어서... 생활하는 것보다 공부하는게 더 어려웠어요.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장 컸어요. 한국말할 때 서툴러요

본국 초중에서 배운내용은 한국에와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학하고 영어는 조금 도움이 되었어요. 공부하다 잘 모르는 부분은 보통 혼자서 공부하는데 온라인(유투브)으로 공부했어요

기술관련된 실습을 많이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일주일에 2번정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지원했는데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지금 배우는 기술이나 공부가 대학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과를 경영으로 지원했어요.

(컴퓨터 학과에 지원했는데) 자격증 없어요. 대학교가서 자격증 따고 싶어요.

한국학생들하고 같이 농구하거나 할 때 같이 놀아요. 따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국학생은 없어요. 유학생들끼리는 친해요. 국가상관없이...게임도하고... SNS있어요. 카카오톡에 전체(유학생방) 다 있어요. 한국어로 정보를 공유해요.

기아나 현대 같은 산업체 실습 궁금해서 가보고싶어요. 관심없어서 가보고싶지 않아요 .

어려울 때 국어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생활할 때 어려움을 요청할 사

람은 없어요. 혼자 해결해요. 선배들이 대학 지원하는 거 도와줬어요.(몽골) / 선배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졸업후에 여기서 배운 것 중 한국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습이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겟어요.

한국취업 관심 있어요. 삼성 같은 회사의 경영 관련된 일이요 A중국학생, B우즈베키스탄 학생) 앞으로 더 공부해 서 박사하고 싶어요. 3년 지나보니... 몽골에서는 수업이 어려운데... 취업도 잘 안되는데...한국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본국 친구들에게 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몽골). 안하고 싶어요(중국). 매년 본국에서 후배들이랑 한국에 오기 전에 설명회 같은걸해요. 나중에 저도 가려구요 (우즈베키스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련 연구자 면담

2019.11.27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육 장학사업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단위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확대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3년전부터 교육부가 아세안학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와 교사와 학생의 교류프로그램이고, 지식의 추상적인 전달보다는 외국에 가서 교육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도국의 접근인데요...이 사업에서는 EAS에서 추진한 단기 학생 및 교사 교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EAS에서도 단기프로그램을 중장기로 학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거점학교에서 개도국과 교류를 통해서 축척된 경험을 다른 참여학교와 공유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국차원의 종합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인데요. 성과확산을 위해서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 2020년 총 예산은 5-10억 정도를 예상 하고 있어요.

아세안 교육부 고위공무원 정책협의회(사무국: 직능원)가 EAS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에서 정책협의회 개최 예정이고..교육부에서 아세안 개별 국가의 TVET 담당부서와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요. 이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교량역할을 하고 특성화고가 실제 play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국제협력사업을 가이드할 전문가 양성(전직 교장, 교사 출신 등이며 EAS 사업에 의해서 이미 태국 , 미얀마. 인도네시아 자매결연학교 방문을 통해서 교육과정개발 및 시행 등에 대한 자문을 시행)을 통해서 개별 학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지요. 개발도상국 협력대상 학교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도 지원할 것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차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교류 사업

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북방정책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교육부(국제협력담당관실)가 주도하여 신남방, 신북방 관련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ERIS 참여)가 마무리되어 있어요.(2019년 11월 27일 한국 직업능력 개발원 김민규 박사)

ODA 시행 주무 기관(KOICA) 연수사업 담당자 면담

2019.11.29.

중등직업교육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연수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개도국 공무원들이 연수초청 대상 입니다. 중등 연수는 특수하게 개도국 중등학교 교사 역량강화를 시행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학생초청의 경우, 비자발급 및 체류 문제 등으로 대상자로 포함하기 어려습니다.

학생대상 교육은 한국의 기술 및 노하우를 보고 접하고 배우고 돌아가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오지 않아도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교육이 진행되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 시켜서 현지연수 형태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 연수의 일환으로 국내에 학생을 초청할 경우 장점도 있겠으나 당초 사업의 취지가 학교를 졸업하여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진로변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초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려됩니다.

부록 3. 네팔 교육부 차관 등 면담

개발도상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사업 관련 네팔 교육부 차관 등 면담 주요 내용

일 시: 2019. 12. 15.~12. 16.
장 소: 네팔 카트만두 CLC 개소식
대담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네팔 교육과학기술부 Mahesh Prasad Dahal 차관, 네팔 TRIBHUVAN대학 Sanjeev Humagain 교수

○ 중등 직업교육 ODA가 투명하게 관리되면 네팔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네팔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공업고등하교 기술교육수준이 높으므로 네팔의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ODA를 할 경우 네팔의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중등 직업교육 ODA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지가 강해야 하고 한국에서 유학생을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함
○ 네팔은 사회계급제가 아직도 존재하나 낮은 계층 청소년에게 중등 직업교육 ODA는 도움이 될 것임
○ 한국에 네팔의 국민이 근로자로 가 있는 경우 그들의 자녀를 1차로 선발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중혜택 등의 문제는 고려해야 함
○ 네팔에서 지원자가 있으면 네팔 정부는 창업도 지원할 것임
○ 중등 직업교육 ODA로 한국에서 네팔 학생들이 참여할 때 학생들은 한 학교로 모아주면 좋을 듯함
○ 네팔의 학생관리 지도교사가 여선생님이면 학생들에게도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임
○ KOICA 단원으로 네팔 ODA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장학사업을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임
○ 학생들이 한국에서 직업교육을 마치고 취업 경험까지 가지고 오면 더 좋을 듯함
○ 네팔에 7개 주가 있고 지자체들도 많은데 주마다 모범적인 직업기술학교를 세우면 좋을 듯함

부록 4.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 타당성 조사 결과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 타당성 조사 결과

2019. 2.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목 차

Ⅰ.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 1

1 개요 ····· 1

2 주요 논의 내용 ····· 1

3 질의응답 ····· 2

Ⅱ. 설문 결과 분석 ····· 3

1 개요 및 요약 ····· 3

2 문항별 응답 결과 ····· 5

3 종합 결론 ····· 11

Ⅲ. 향후 계획 ····· 12

1 영문 서한 ····· 13

2 영문 장학 지원(안) ····· 14

3 장학 지원(안) 영문 설문 조사 ····· 16

[붙임 1] 간담회 및 설문 참여자 명단 ····· 22

[붙임 2] 간담회 사진 ····· 23

[붙임 3] 설문지 양식 ····· 24

Ⅰ.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결과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 02. 21.(목) 13:40 - 16:30, 서울시 중구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8층 세계시민학교

○ 참석자 : 전국 특성화고 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 교장 및 담당부장,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중등 직업교육 담당자, (사)국제고용개발원 조정윤 박사(특강) 등 총 21명

○ 목적: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의 수요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주요 논의 내용

○ **(간담회 개최 배경 설명/송낙현 유네스코학교팀장)** 본 간담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을 설명하고, 특성화고 교육 현장의 수요 파악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됨.

○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인사말씀)** 본 장학 지원(안)으로 개도국의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국내 특성화고에서 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육 ODA 기반의 국제, 외교적 협력에도 기여하고자 함.

○ **(중등 직업교육 ODA의 필요성과 효과 특강 / 조정윤 (사)국제고용개발원 박사)**

- **하드웨어 위주 지원 사업을 탈피한 소프트웨어 사업 필요** : 본 장학 지원(안)과 같이, 개도국 산업이 필요한 인력양성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한국 TVET 경험공유의 양방향 추진** : 기존에 전무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분야의 한국 초청 직업교육 성공사례를 개발하고 국내 해외 진출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의 대 개도국 직업교육 시스템 수출시장 형성.

- **한국 직업교육의 국제화 촉진기반 마련** : 중등 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직업교육 전공 교과 교사의 국제협력사업 수행능력 제고.

○ **(장학 지원(안) 설명/송낙현 유네스코학교팀장)** 본 장학 지원(안)의 추진 배경, 필요성 및 방안(수원국 선발·매칭 → 초청 및 준비(한국어 교육) → 국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이수(3년) → 경력 개발 경로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음.

□ **질의응답**

○ **본 장학 지원(안)은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림.**

-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만큼, 이제는 한국이 인프라 및 인력 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에 도움을 줄 때라고 생각함. 직업교육 ODA를 통해,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인력 양성을 지원해줌으로써, 미래 산업사회 수요 인력의 국제화에 대비한 해외 산업인력의 국내 양성과 국내 해외 진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기관에도 개도국에 교사를 파견하는 등 비슷한 ODA 사업이 있는데, 본 장학 지원(안)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함.**

-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국내 교사 만 명 정도를 외국에 파견시킨 적이 있으며 KOICA 등에서도 관련 ODA 사업이 있지만, 이 중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없음. 국제적으로 직업교육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본 장학 지원(안)을 통해 직업교육 ODA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음.

○ **개도국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문의함.**

- 본 장학 지원(안)에 유학생들의 민간의료보험 등이 포함된 기본 생활비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을 지도할 수원국의 교사도 함께 초청하고, 특성화고에 전담 생활지도 교사를 배치하여, 유학생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 특성화고 학생들도 외국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이 줄어들고, 학교는 글로벌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함. 또한, 본 장학 지원(안)에 포함된 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국내 특성화고 교사들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

Ⅱ. 설문 결과 분석

□ 개요

○ 조사 방법 : 간담회(2.21.) 개최 후 설문 요청을 통해 응답결과 수취·분석

○ 설문 대상 : 전국 특성화고 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 교장 및 담당부장,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중등 직업교육 담당자 등

○ 설문 참여자: 총 11명(명단은 붙임 2 참조) ※ 간담회 참석자 총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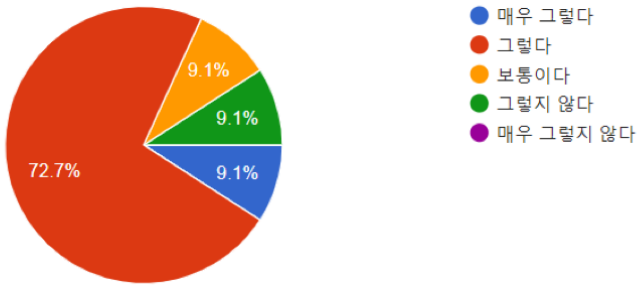
□ 요약

번호	질문	객관식 응답결과 및 의견
1	장학 지원(안)에 대한 이해도	**① 매우 그렇다(9.1%), ② 그렇다(72.7%),** ③ 보통이다(9.1%), ④ 그렇지 않다(9.1%), ⑤ 매우 그렇지 않다(0%)
2	장학 지원(안)의 필요성 여부	**① 그렇다(72.7%),** ② 아니다(27.3%)
	2-①) 필요한 이유	· 개도국 경제력 신장에 기여,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국위선양, 국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보 등
3	학교의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함(70%)** **②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 희망함(20%)** ③ 희망하지 않음(10%)
	3-①) 입학 가능한 유학생 규모	**4 ~ 25** 명 (개별 응답: 4, 6, 10, 25명)
	3-②) 참여 희망 분야 (우선순위대로)	· 관광전문인(호텔,여행사, 항공사, 관광통역안내 등) · 통상무역분야 · 농기계, 축산, 조경 등
	3-③) 학급편성 구분 및 이유	**① 별도 학급 편성(57.1%)** : 현장학습/ 국내학생 도움에 도움 ② 기존 학급에 편성(42.9%) : 효율적 관리, 별도 교육과정 필요
	3-③-①) 별도 학급 시 교육과정 운영 구분	**① 학교의 기존 교육과정 편성.운영(60%)** ② 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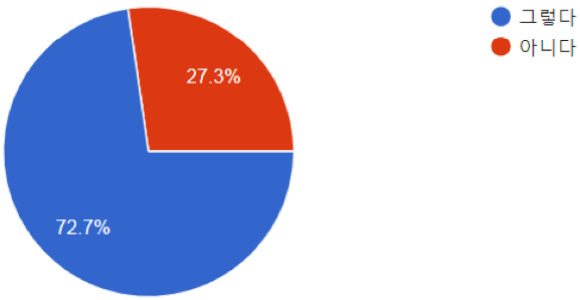
	3-③-②) 기존 학급 시 교육과정 운영 구분	**① 학교의 기존 교육과정 편성.운영(75%)** ② 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25%)
	3-④) 교육과정 편성 방안(우선순위대로)	**① 한국어 등+직업기초능력+현장실무(71.4%)** :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에 대한 이해교육이 가장 중요함 ② 직업기초능력+현장실무+한국어 등(28.6%) ③ 현장실무+직업기초능력+한국어 등(0%)
	3-⑤) 기대 효과	· 학생들의 ODA 교육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교류 활성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장기적인 인력 확보 방안 등
	3-⑥) 필요한 지원	**(상기 3번 항목에서 '②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등의 지원이 있다면 희망함'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 생활지도 및 교육과정 지원(예산, 교사확보, 과정 개발 등)
	3-⑦) 희망하지 않는 이유	**(상기 3번 항목에서 '③ 희망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 직업교육분야가 맞지 않음, 유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 부족
4	장학 지원(안)에 대한 제언 및 의견	· 수원국의 경제규모 및 산업현황에 대한 선이해 및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 필요 · 유학생의 생활지도/유학생의 멘토학생 및 멘토교사 지정 · 학생 인원 소규모화 필요/ 다양한 국가의 학생 선발
5	추가(안)에 대한 의견	**① 단기 직업교육(2개월)+장기 직업교육(4년): 적절할 것 같음** · 단기직업교육(2개월)이 필요한 분야(농기계교육, 축산, 조경 시공 등)의 필요 충족 **②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원국(모친 혹은 부친의 국가) 대학 진학 지원(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됨** · 수원국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다문화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문항별 응답 결과

1. 귀하는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2. 귀 교는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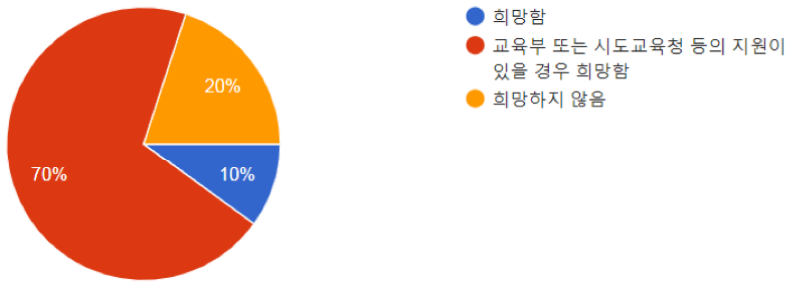


(상기 2번 항목에서 '①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2-①) 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도국 경제력 신장에 기여** · **선도적 개도국지원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국위선양 등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국제적으로 많은 분야(특히 교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본교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보**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해소방안의 하나로 이민이 고려되고 있는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서 생활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임**

3. 귀 교는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해, 개발도상국 중학교 졸업생이 귀 교에서 수학하길 희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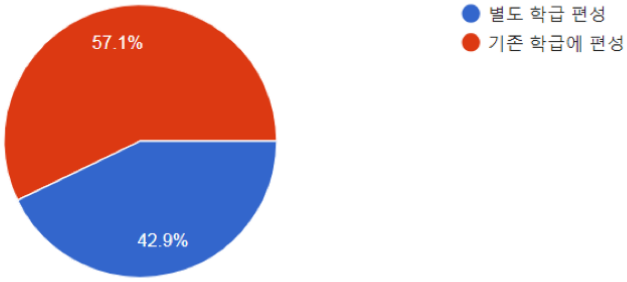
(상기 3번 항목에서 '① 희망함'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3-①)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할 경우, 귀 교에 입학 가능한 유학생 규모는 몇 명 정도입니까? **4 ~ 25** 명 (개별 응답: 4, 6, 10, 25명)

3-②)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우선순위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전문인(호텔,여행사, 항공사, 관광통역안내 등)** · **통상무역분야** · **농기계, 축산, 조경 등**

3-③)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한다면 유학생 학급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함께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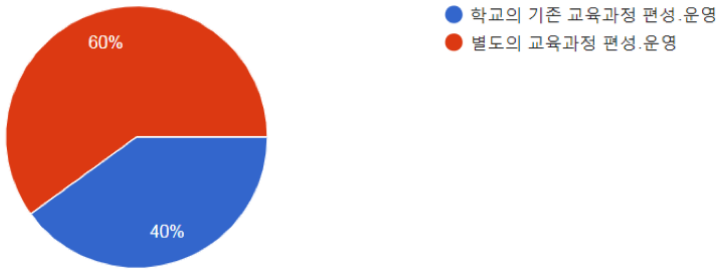


[기존 학급에 편성 이유]
· 한국어능력이 5급정도 이상이면 기존 학급편성이 가능하며, 3등급 정도이면 별도 학급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인성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켜 5등급 정도를 취득하면 기존학급에 편성하여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 현장학습/ 국내학생 도움에 도움
· 현재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국내학생과의 이수 수준을 평가한 후 기존 학급 편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별도 학급 편성 이유]
·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양쪽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교육과정이 국민을 교육하는 것과는 달라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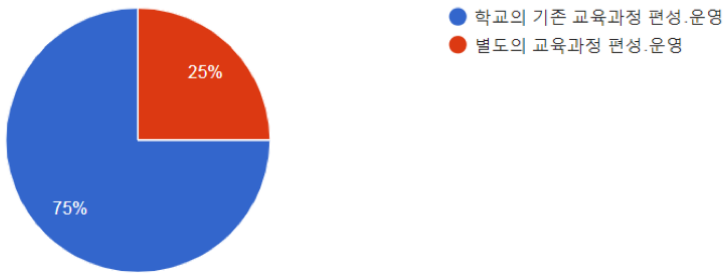
(상기 3-③번 항목에서 '① 별도 학급 편성'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3-③-①)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하여 유학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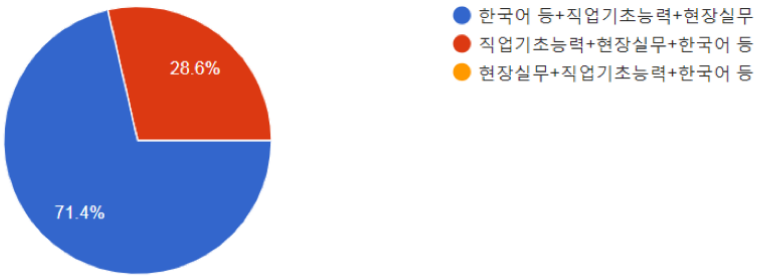


(상기 3-③번 항목에서 '② 기존 학급에 편성'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3-③-②)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하여 유학생을 기존 학급에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④)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한다면 유학생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아래 선택지의 교육과정은 우선순위대로 나열되어 있음)



·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시간을 일반학생들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 같음.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며, 1학년 정도는 별도의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2,3학년은 기존학급에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3-⑤) 귀 교가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지원'에 참여하여 기대하는 바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생들의 ODA 교육(현재 10년 이상 월드비전 한 학급 한 생명 후원) 2) 국제교류활성화**
· **학생교류를 통한 학교의 목표인 글로벌 비즈니스에 부합함**
· **1) 학교 교육 실습시설 활용 극대화 2) 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 및 인구감소 해소방안**
· **글로벌 마인드 제고**

(상기 3번 항목에서 '②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등의 지원이 있다면 희망함'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3-⑥) 본 장학지원(안) 참여를 위해 학교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 학생들 관리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야간 및 공휴일, 방학 등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함. 교사들이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역할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교육과정 개발/예산지원 · 본교는 자체적으로 중국 유학생 4명을 학생들을 기존학급에 편성하여 수업을 하고, 기숙사생활은 한 적이 있음(전원 본교 졸업). 유학생들을 받으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서울 경기 기계공고와 마찬가지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였음. 장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생들의 숙식,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필요(재정)/ 교육을 위한 교사지원 · 교육과정 지원, 예산, 교사확보

(상기 3번 항목에서 '③ 희망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응답)

3-⑦) 귀 교가 본 장학지원(안)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업교육분야가 전기, 건설, 기계분야이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움 · 별도의 기숙사 시설 등 유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

4. 본 장학지원(안) 전반에 대한 제언 및 의견(사업 추진 방식 등),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 측에서 필요한 내용, 극복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수원국의 경제규모 및 산업현황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수원국 현지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육이 아니면 의미가 없음 · 유학생의 생활지도/유학생의 멘토학생 및 멘토교사 지정 · 학생 인원 소규모화 필요/ 다양한 국가의 학생이 혼재되어 있으면 좋겠음 · 주말학생지도/학생관리 · 학생지도 및 언어소통: 별도의 교사지원/ 방학 및 휴일: 별도의 예산 및 교사 지원

5. 본 장학지원(안)은 외에 단기 직업교육(2개월)+장기 직업교육(4년) 및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원국(모친 혹은 부친의 국가) 대학 진학 지원 포함(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안) 추진에 대한 의견(필요성, 타당성 등)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단기 직업교육(2개월)+장기 직업교육(4년)

·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1. 단기직업교육(2개월)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 있음. 예)농기계교육, 축산 중 특수 분야, 조경 시공 등 / 2. 장기직업교육등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단기 2개월은 한국어가 가능한 경우라면 연수(교육)대상자 선발전 단계로 좋을 것 같음. 단, 한국어가 수강할 정도가 아니라면 2개월의 단기는 체험학습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음**

②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원국(모친 혹은 부친의 국가) 대학 진학 지원(안)

· **좋은 정책으로 판단됨** · **수원국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다문화 사회화라는 특면에 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국내 대학 학비지원도 고려하면 좋을 듯함**

□ 종합 결론

○ **(장학 지원(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설문 응답자 대부분(70% 이상)은** 본 장학 지원(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동감함.** 동감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성장, △국제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국위 선양, △국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확보 등으로 응답했으며, **대부분의(70% 이상) 학교들이** △국제교류 활성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며 **참여 의사를 나타냄.**

○ **(보완 및 고려 사항)** 설문 응답자들은 개도국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 지도 및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시도교육청의 추가 지원이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함. 또한, 본 장학 지원(안) 외에 단기 직업교육(2개월) 혹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수원국(모친 혹은 부친의 국가) 대학 진학 지원 포함(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Ⅲ. 향후 계획

□ 수원국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조사 방법 : 수원국 대사관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를 통해 개도국 학생 초청 중등 직업교육 장학 지원(안)을 설명하고, 설문 요청(2.28. 발송 완료)을 통해 응답결과 수취·분석

○ 설문 대상 : 다국가(총 6개국) 대사관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
- 아시아 중점협력국(4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 아프리카(2개국): 말라위, 세네갈(중점협력국)

○ 설문 기간: 2019. 02. 28 - 03. 31

□ 향후 일정

○ 수원국 대상 수요조사 결과 정리

○ 정부 부처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협조('19. 3. ~)

□ **영문 서한**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Ref: KNCU/UAS/

28 February 2019

His Excellency Mr.
Ambassador
The Embassy of

Subject: Preliminary Survey for a Scholarship Programme in the Republic of Korea

Dear Ambassador,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are planning to develop a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scholarship programme for youths from developing countries, called the 'The Korean Scholarship Programme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he programme will be aimed at young people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have completed at least 9 years' schooling or have an equivalent level of knowledge. It is intended that participants will be invited to Korea, where, upon completion of a 6-month Korean language course, they will begin a 3-year vocational training course at a formal upper secondary school in the Republic of Korea specializing i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 vocational high school). The intention is that participants' studies will b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fishing & shipping, home economics, or commerce & information.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provide participants with a round-trip airfare, the costs of all educational expenses, room and board.

The attached preliminary survey aims to collect information from the relevant authorities in targeted countries concerning the specific types and areas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which there is a need or a particular interest, based on each country's development priorities.

We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arrange for the attached form to be completed and returned by e-mail to the Division of UNESCO Associated Schools (asp.team@unesco.or.kr) by **31 March 2019**. Your response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relevant and appropriate scholarship programme that reflects your country's demands and expectations.

Should you need any assistance to fill in the form,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via e-mail.

Sincerely,

Kwangho Kim

Kwangho KIM
Secretary-Genera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6 Myeongdong-gil
(UNESCO Road), Jung-gu,
Seoul 04536, Rep. of Korea
Tel (+82)2-6958-4183
Fax (+82)2-6958-4252
E-mail asp.team@unesco.or.kr
www.unesco.or.kr

Encl. Concept note and preliminary survey

□ 영문 장학 지원(안)

The Korean Scholarship Programme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 Concept Note -

1. Background

- **Title:** 'The Korean Scholarship Programme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 **Organiz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Objectives**
  -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 the Education 2030 Agenda; in particular, the two target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importance of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argets 4.4 and 4.5) and the need for scholarship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Target 4.b).
  - Nurturing and training developing countries' technical professionals and supporting technical advancement by helping participants to benefit from **the rich infrastructure for secondary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in South Korea.**
  - Promoting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youth from different countries.

2. Programme Description

- The scholarship programme aims to invite a total of 60 talented young people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study at formal upper secondary schools in Korea specializing i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cational high school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industry, fishing & shipping, home economics, or commerce & information.
- Participants: Youth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are aged 15 and above and who have completed at least 9 years' schooling or have an equivalent level of knowledge.

3. Programme Course and Benefits

- **1st 6 months: Korean Language Courses**
  - Before entering a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 participants will go through **a six-month-long on-boarding orientation process.** During these 6 months, participants will study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6

1

months, participants will take the national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immediately before being dispatched to vocational high schools.

- **Following 3 years: TVET Programme**
  - Participants will **attend a vocational high school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up to 3 years.** They will learn with Korean students taking one of the following majors: agriculture; manufacturing; fishing & shipping; home economics; or commerce & information. After finishing the three-year-long upper secondary course, **participants will receive a (senior) high school diploma.**

- **Scholarship and Benefits**
  - The Republic of Korea will **provide participants with a round-trip airfare,** and will **cover the costs of all educational expenses,** including teaching materials, room and board, medical checkups, medical insurance premium, and a small amount of personal allowance (approximately 200 dollars a month). While in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nts will live in a dormitory. During vacations, participants will participate in further Korean language courses provided by KNCU, and will be encouraged to experience field work in Korea. Participants will also be provided with airfares to visit their home countries during winter vacations (2 times).

4. Contact

- Ms. LEE, Sou Yeon
  Bureau of Education, Division of UNESCO Associated School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9th Floor, 26, Myeongdong-gil, Jung-gu, Seoul, 04536, The Republic of Korea
  Tel: +82-2-6958-4183 / e-mail: leesouyeon@unesco.or.kr

□ 장학 지원(안) 영문 설문 조사

Preliminary Survey for the Korean Scholarship Programme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Please type or print all entries in English.
Please use additional sheets, if necessary.

I. Demand for Secondary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 **Potential secondary TVET fields that could be covered by the Invitation Scholarship: needs and priorities**

1)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selection of fields of TVET that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can provide. According to your country'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which fields of secondary TVET are the most relevant and urgently needed? Please mark the 1st to 5th by priority, with 1 being top priority. Also, for each of the top five fields, please give an estimate of the number of students who could apply for the 2020 TVET invitation scholarship programme in that field from your country.

Field	Specific Field	Majors	Priority	Estimate
Agricultural Science	Agriculture	Agriculture, Horticulture, Forest Resources, Animal Resources, Agricultural Machinery,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Manufacturing Industry (Engineering)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Landscaping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Automobile Machinery, Shipbuilding, Aviation		
	Material Engineering	Metal Engineering, Ceramic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Chemical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Electronics Engineering		
	Environmental / Safety Engineer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dustrial Safety		
Marine Shipping	Fishing / Oceanography	Marine Production, Fish Culture, Marine Leisure		
	Shipping / Navigation	Navigation, Ship Engineering		

1

Vocational Home Economics	Health / Welfare	Child Care, Social Welfare, Health Nursing		
	Design / Cultural Contents	Design, Cultural Contents		
	Beauty Care / Tourism / Leisure	Beauty Care, Tourism, Leisure		
	Food Technology	Cooking, Food and Beverage		
	Food Processing	Food Processing		
	Textiles / Clothing	Textiles, Clothing		
	Printing / Publication / Crafts	Printing, Publication, Crafts		
Commerce and Information	Management / Finance	Management, Financial Accounting, Distribution, Finance, Sales		
	Information / Communications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Computer Information		

* From specialized subject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Scholarship Programme and reasons**

2) If the Scholarship Programme (the Korean Scholarship Programme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s carried forward, would your country b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me?

☐ Willing to participate
☐ Not willing to participate
☐ Do not know

2-1) Why did you choose such answer in the question above? If possible, please explain the reasons, and give any recommendations, opinions, or concerns you may have about the Scholarship Programme.

2

II. Current National Situation in relation to TVET in your Country

- **Current national status of industries**

1) What is your country's industrial structure? Please provid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in your country.

Industrial Classification	Importance
Primary industry: an industry that produces energy or basic materials, such as coal, oil, metals, crops, etc. e.g. agriculture, stock-farming, forestry, fishing	%
Secondary industry: an industry that manufactures goods rather than producing raw materials. e.g. 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gas and tap water industry	%
Tertiary industry: an industry that provides services rather than producing goods. e.g. commerce, tourism, financial busines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service	%

- **Schooling system**

2) Please fill in the table below about your country's schooling system, using national statistics and relevant information.

	Primary	Lower Secondary	Upper Secondary	University / Technical school
School Attendance Period (Age ? ~ Age ?)	to	to	to	to
Compulsory Education (Y/N)	☐	☐	☐	☐
School Attendance Rate (%)	%	%	%	%
School Completion Rate (%)	%	%	%	%
Provision of TVET (Y/N)	☐	☐	☐	☐

- **Status of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 When and how is TVET provided to students in your country?

(You can choose multiple answers)

- ☐ Formal Education_Primary School
- ☐ Formal Education_Lower Secondary School
- ☐ Formal Education_Upper Secondary School
- ☐ Formal Education_University
- ☐ Formal Education_Technical school
- ☐ Non-Formal Education

4) Which field of TVET does your country most commonly teach?

- ☐ Agricultural Science
- ☐ Marine Shipping
- ☐ Engineering
- ☐ Commerce and Information
- ☐ Vocational Home Economics
- ☐ Others

5) What do those who graduate from secondary TVET choose to do after their graduation? Please let us know the ratio (%) of each answer.

- Entering university / college %
- Getting a job %
- Studying abroad %
- Establishing a business %
- Other %

6) If your country has a system or policy direction for training industrial and technical professionals in line with a national development plan or TVET strategy, please describe its main content and send us the relevant reference material, such as a policy document or website, with this survey answer.

7) Please describe challenges or point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your country's TVET.

8) If there is a designated governmental / semi-governmental / non-governmental entity responsible for secondary TVET at the national level in your country, please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entity.

Full Name of the Entity		
Website		
Type of the Entity	☐ Governmental ☐ Semi-Governmental ☐ Non-Governmental	
Person in Charge of TVET at the Entity	Name	
	Position / Job Title	
	Phone Number	
	E-mail Address	

5

III. Respondent's Information

Name	First Name: Last Name:
Position / Job Title	
Organization	
Country	
Phone Number	
E-mail Addres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ribution!

* The data collected will remain confidential and will only be used by KNCU for developing the scholarship programme.

6

부록 5.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연구 발표자료

국제고용개발원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International Institute of Employment Development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연구

2020. 2. 13

조정윤 송낙현
이재준 정유성

목차

1. 연구의 개요

2.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 사업 선행 연구조사·분석

3.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4.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5.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6. 제언

PART 1

연구의 개요

Ⅰ. 연구 목적
Ⅱ. 연구 내용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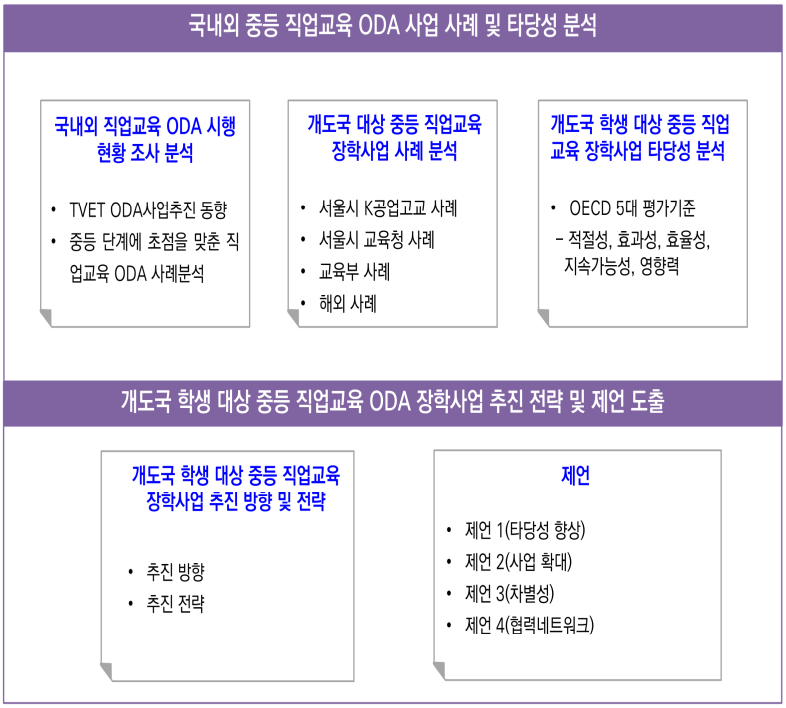
연구 목적

- **개도국 중등 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을 고찰하여 ODA 사업으로 형성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마련**

-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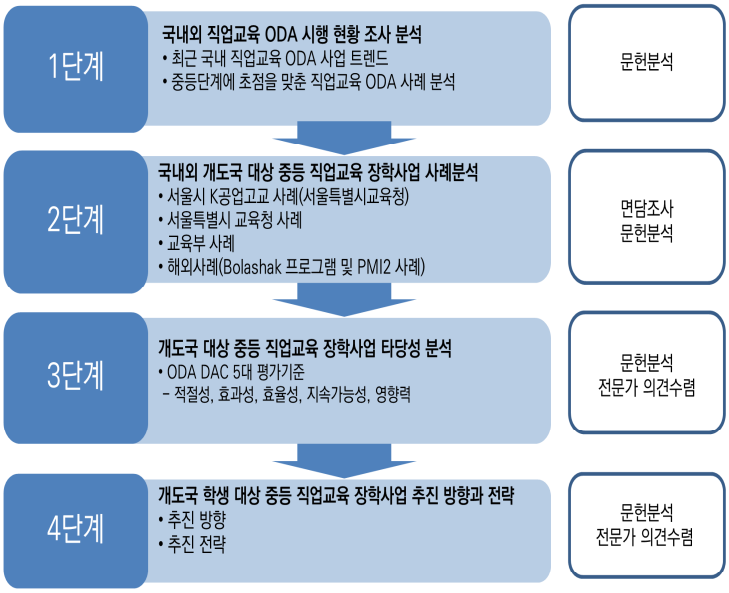
- 둘째,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비교우위 및 지원 여건을 토대**로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포지셔닝함

연구내용


국내외 중등 직업교육 ODA 사업 사례 및 타당성 분석
국내외 직업교육 ODA 시행 현황 조사 분석
• TVET ODA사업추진 동향
• 중등 단계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ODA 사례분석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사례 분석
• 서울시 K공업고교 사례
• 서울시 교육청 사례
• 교육부 사례
• 해외 사례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 OECD 5대 평가기준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 전략 및 제언 도출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 추진 방향
• 추진 전략
제언
• 제언 1(타당성 향상)
• 제언 2(사업 확대)
• 제언 3(차별성)
• 제언 4(협력네트워크)

5

연구 추진절차 및 방법


1단계
국내외 직업교육 ODA 시행 현황 조사 분석
• 최근 국내 직업교육 ODA 사업 트렌드
• 중등단계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 ODA 사례 분석
문헌분석
2단계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사례분석
• 서울시 K공업고교 사례(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례
• 교육부 사례
• 해외사례(Bolashak 프로그램 및 PMI2 사례)
면담조사
문헌분석
3단계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 ODA DAC 5대 평가기준
-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4단계
개도국 학생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
• 추진 방향
• 추진 전략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6

PART 2

국내외 직업교육 ODA 시행 현황 조사 분석

Ⅰ. 중등 직업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
Ⅱ.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 ODA
Ⅲ. 개발도상국 직업교육훈련 여건
Ⅳ.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해외 장학 사례
Ⅴ.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노동의 이동
Ⅵ. 우리의 정책지원 여건

중등 직업교육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SDGs 4번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
- 세부목표 '4.1 양질의 무상 초·중등 교육 제공', '4.3의 기술·직업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보', '4.4의 취업·양질의 일자리·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전문성을 지닌 청소년 및 성인의 수 증대'와 관련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중기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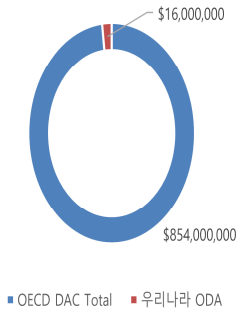
- 유네스코(2016)의 경우 SDG 이행을 위해 2016~2021년 TVET 중기 전략을 수립
- 세계 TVET 체계의 상관성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성인이 고용·창업·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1) 청소년 고용과 창업 육성, 2) 공정과 양성평등의 촉진, 3)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하는데 실천 목표를 설정·이행

8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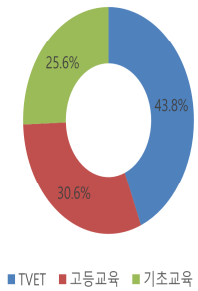
- OECD DAC 회원국의 중등직업교육 지원금액 총 규모는 854백만불(2016년 기준) 규모이며,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의 ODA는 16백만불 규모로 유상과 무상원조의 양자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 ODA가 실행되었음

우리나라 중등 직업교육 ODA(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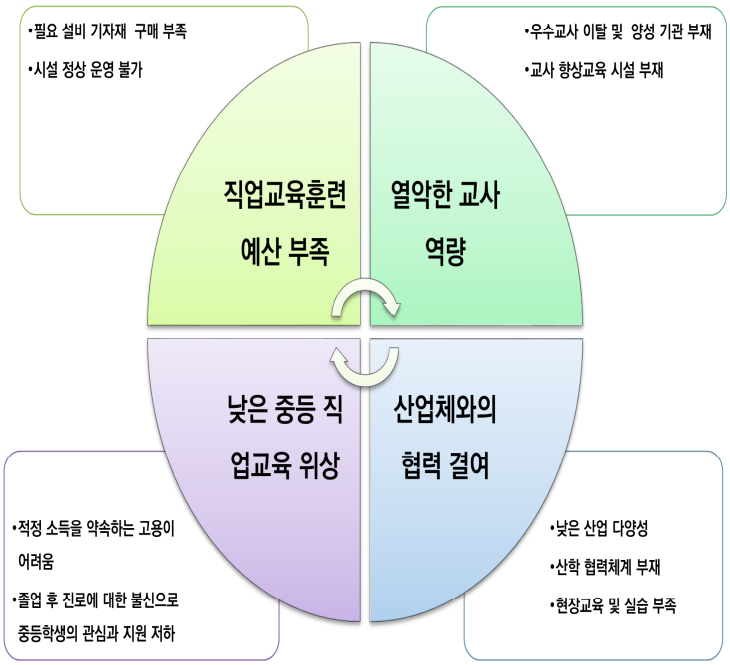
- KOICA 분야별 중기 전략(2016~2020)에 따르면 **TVET이 전체 교육 분야 예산의 43.8%** (고등교육 30.6%, 기초교육 25.6%)를 차지

KOICA 2016-2020 교육 분야 중기 지원 계획



9

개도국 직업교육훈련 여건



10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해외 장학 사례

-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장학 정책의 실행은 기존 자국 내 인적 자본 개발과는 다른 효용**이 나타남(Perna, Orosz and Jumakulov, 2015)

➢ 해외 유수 교육훈련기관의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전달을 촉진**하고 **자국민의 국제적 시각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둠

➢ 해외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산업계에 진출한 인적자원이 **자국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되는 등, 세계화된 경제·산업 하에서 기존의 기술인력에 요구되는 능력과 재능이 변화함

11

직업교육의 세계화와 노동이동 촉진

- **시장과 인적자원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세계화적 특성에 따라,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지와 대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됨**

  -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통합과 변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실업과 직업교육 문제에 대해 **개도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 요구**

  -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시장과 기업이 광범위하고 유동적으로 협력하는 **현대에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시장의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

  - 이러한 능력은 물리적인 이주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에 들어온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통신을 활용하여 국경을 넘지 않고도 발생

  - 젊은 층에 주목해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달기 청소년은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험을 흡수하고 그들의 개인능력을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데 탁월**

우리의 정책 지원 여건 (신남방정책을 중심으로)

- **기존 아세안 협력기금의 규모를 200% 증가시키**고(1400만 불) 한-메콩 기금도 300% 규모로(300만불)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신남방정책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갖고 1)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 협력기반 구축, 3)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

13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2018)

람 (People)	
상생번영 (Prosperity)	
(Peace)	

- **'사람(People): 추진 목표 3'**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이행방안'으로 **신남방 지역 장학생 지원사업 및 대학생 초청연수, 공무원 연수규모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확대** 등을 명시

14

PART 3

국내외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사례 조사·분석

Ⅰ. K 공업고교 사례
Ⅱ.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Ⅲ.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례
Ⅳ. ODA 시행 주무기관(KOICA) 사례
Ⅴ. 해외사례(Bolashak 프로그램 및 PMI2 사례)

서울특별시 K공업고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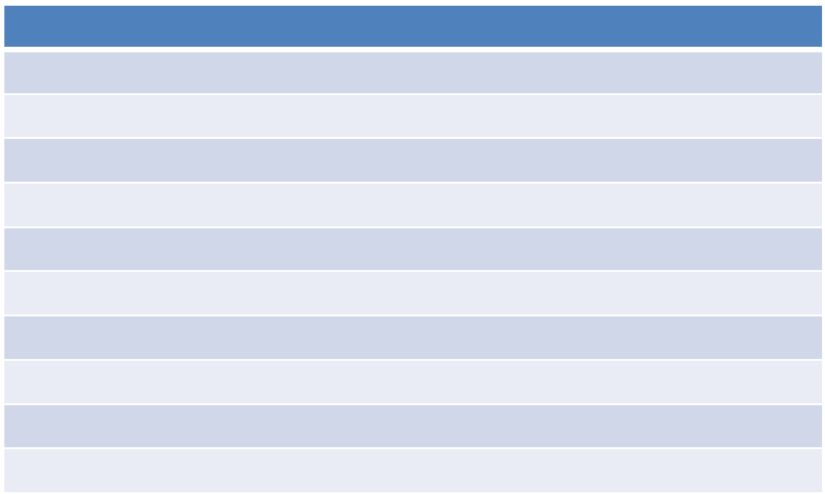
- **도입**
  - K고교는 1998년부터 북방지역 교포 자녀 초청 기술교육 사업을 **20여년 간** 시행해 오고 있음
- **현황**
  - 북방 4개국(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으로부터 초청하여 직업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및 재학생은 약 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졸업생 140명중 111명이 국내 대학 진학, 29명 대부분이 해외 대학 및 자국 대학에 진학** 하였음.
  - 대학 전공의 경우 **50%가 인문계열(경제, 경영 등)**이며 50%가 이공계열(기술 공과)임
- **교훈**
  -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 학생이 첫째 한국어 능력,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초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목표**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목적과는 격차가 있는 상황
  - 개도국 중등직업교육 초청 장학생 **선발 당시부터 직업교육의 목적에 맞게 경력개발 경로에 관심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취업-후진학의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16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

- **특성화 고등학교 국제화교육지원사업(2018-2022)**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25개 구, 80개(순수 특성화고 70개, 산업정보고 6개, 마이스터고 4개) 특성화고에 국제화교육 10대 중점 과제를 이행 중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계속)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국제화교육지원사업(2018-2022)**
  - 북방 교포 자녀 초청 중등 직업교육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남방 개발 도상국 청소년으로 확대 예정**
  - 베트남,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청소년을 **2021년 초청**할 계획임

- **Asian Development Bank(ADB)와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협력 계획**
  - 현재 ADB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협력을 계획 중에 있으며 잠정적으로 한 학년에 60명씩 3개 학년 180명에 대한 초청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

- **기대 효과 및 예상 문제점**
  - 우리나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도 개도국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특성화고 미달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필요
  -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교육한다는 비판** 가능성 상존

18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례

- **교육부 아세안 학교 교류 사업**
  - 교육청단위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확대·적용 중이며 3년전부터 교육부가 **아세안학교 교류사업**을 계획
  - EAS(East Asia Summit)에서 추진한 단기 학생 및 교사 교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EAS에서도 **중등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프로그램을 중장기로 확대**하려고 시도
  - **추상적인 전달보다는 외국에 가서 교육을 실제로 체험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도국의 최근 접근

- **전국 4대 권역 거점학교 지정을 통한 개도국 교류 및 지식정보 공유 체계 수립 계획**
  -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개도국과 교류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다른 **참여학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화사업을 확대

19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례(계속)

- **교육부는 2021년 미얀마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세안 개별 국가의 TVET 담당부서와 MOU를 체결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교류협력 계획 마련**
  - 교육부는 고위공무원 정책협의회(사무국: 직능원)를 EAS 사업을 통해서 운영
  - 2021년 미얀마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아세안 개별 국가의 TVET 담당부서와 MOU 체결 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 예정

- **교육부는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국제교류 사업 확대 예정**
  - 교육부(국제협력담당관실)가 주도한 **신남방, 신북방 관련 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ERIS 참여)가 마무리되었으며 여기에 **중등 단계 직업교육 국제교류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TVET 관련 사업 확대 예정**

ODA 시행 주무기관(KOICA) 사례

• **ODA 시행 주무기관 중등 직업교육 시행 의견**

- 현재 연수사업의 주요 대상은 **개도국 공무원**이며, 중등학교 대상 연수는 중등학교 교사 역량강화 경험이 있음
- 중등학생 초청의 경우 **비자발급 및 체류 등의 문제로 인해 대상자로 포함되기 어려움**
- 중등직업교육 장학생 초청사업의 효과성은 있겠으나 나라마다의 특성으로 한국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지 연수 형태의 지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중등직업교육의 취지**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인 반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진로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내재에 대한 의견 제시**

21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영국 PMI 정책

- **영국 Prime Minister's Initiative(PMI) 정책 배경**
  - 1999년 PMI 1차로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성인교육(Further Education : FE) 25,000명,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50,000명 증가를 목표로 한 영국내 유학생 유치정책 시행
  - 2차 PMI(2)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성인교육(Further Education : FE) 30,000명,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70,000명 증가를 목표**
  -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영국교육 브랜드화, 유학경험 양질화, 전략적 파트너쉽 및 협력 증대를 목표로 제시**

- **영국 Prime Minister's Initiative2(PMI2) TVET 유치 전략 배경**
  - TVET 역량부족으로 미래 경제성장을 위협받는 국가들은 TVET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 교육방법론, 자격체계 현대화, 교사 및 교사 재교육, TVET 체계 관리 혁신 분야에서 선진 외국의 지원을 기대
  - **영국은 발전된 TVET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학연수생(학생) 증가 예측**

해외사례 조사 분석 – 영국 PMI 정책(계속)

- **영국의 국제 TVET 사업 (유학생 유치) 발전 방향**
  - TVET 학생유치를 위해 중국, 인도, 아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5개국 TVET 시스템과 시행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 영국의 국제 TVET 사업 추진 배경에는 1)성인 학습에 삭감된 교육기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 소득의 필요와 2)대학의 국제화 목적 포함
  - 이 과정에서 첫째, 글로벌 경제 참여를 위해 교육기관의 인력과 학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비전을 준비
  - 둘째, **새로운 시장 개척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금융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됨**

23

PART 4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타당성 분석

OECD DAC 5대 평가기준별 타당성 조사·분석

OECD DAC 5대 기준

1. 적절성:

-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목적, 대상, 여건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2. 효과성:

-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통한 개도국, 개인(학생), 기업 등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3. 효율성:

-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이행에 대한 경제적·참여자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4. 지속가능성:

-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의 지속가능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제시

5. 영향력:

-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국제적·국내적(개발도상국)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

25

OECD DAC 5대 기준별 타당성 조사·분석결과

1. 적절성

- 산업인력의 부족과 인력 양성이 시급한 개도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발달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은 타당하며, 개도국의 열악한 직업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기 구축된 우리의 시설과 인적 역량**으로 사업 목적 달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2. 효과성

- 중등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은 선진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한국기업과 연계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예측되며, 장학생의 강화된 직무수행역량을 통해 자국 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직업교육 참여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3. 효율성

- 개도국 현지의 TVET 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국내로 초청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저렴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국내에서 개도국 학생을 초청하여 양질의 직업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데 우리나라의 **기 구축된 중등직업교육 인프라를 사용하면 투자금액의 절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청소년의 학업 및 생활 관리는 성인 초청장학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OECD DAC 5대 기준별 타당성 조사·분석결과(계속)

4. 지속가능성

- 우리나라의 유휴 중등단계 직업교육시설과 교사 등의 활용 차원과 신남방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개도국 학생의 유치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나 동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지속적 동의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5. 영향력

-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을 통해 개도국 직업교육 환경의 변화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PART 5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장학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

Ⅰ. 추진방향
Ⅱ. 추진전략

추진방향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추진방향 설정 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1.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SDGs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

2. 현재 우리정부의 ODA 사업 추진방향을 고려하되 특히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동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더불어,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 등 TVET 관련 학교 교원과 시설 등의 역량이 초과 공급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이 유용함을 강조 필요

3.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육부,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여야 할 것임

추진방향(계속)

4.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2) 한국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기초학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3) 기능기술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이 분야 전문가로서 경력개발경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을 선발

5. 한국에서 교육받은 후 출신 개도국으로 돌아가 한국진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 경험을 쌓는 동시에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업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과 협력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

6. 한국 유학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개도국 진출 한국기업에 근무하여 일경험을 쌓고 한국의 공과대학(원) 등 고등교육 기관으로 후진학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관을 통해서 경력경로를 개발하여 한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key player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

추진전략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상기의 방향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교육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 동 사업에 **참여할 의도를 갖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폭넓은 「다자간 협력 플랫폼」 형성 필요.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등이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이 고려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적 변수(필요성 관점)를 반영하여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외교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유사 사업간 차별화를 통해서 동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3.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유네스코의 전 세계적인 플랫폼, 예들 들어 I-hub 등과 같이 개도국 지역거점 TVET 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하여 동 사업을 기획, 시행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HQs는 물론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등 지역사무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사업 추진 계획과 내용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PART 6

제언

제언 1~4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제언

1. 타당성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향상방안 마련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로 제시된 내용 중 지속가능성과 영향력을 좀 더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음 수준으로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2. 한국정부의 TVET 분야 ODA 사업 외연을 확장하여 이 분야 ODA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등단계로 TVET ODA 사업의 확대가 필요

- 한국정부는 KOICA를 통해서 개도국 TVET 분야에 대한 지원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이 주로 중등단계 이후의 TVET 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시행되어 왔으므로 TVET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시행관점에서 **중등단계 TVET에 대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TVET 분야 ODA 사업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접근이 필요**

개도국 대상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제언(계속)

3. 유사 사업주체와 적극적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준비하는 사업간 차별화를 위한 노력 경주

- 서울특별시의 북방 교포자녀 초청 직업교육사업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긍정적인 요소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교육부와 또 다른 중등단계 직업교육 ODA 초청 장학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

4. 동 사업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유네스코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하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개도국 중등 직업교육 ODA 장학사업 추진기관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유네스코 차원의 협력사업화를 통해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의 지원과 협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추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한국정부와 개도국 정부 모두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감사합니다.

IED 국제고용개발원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International Institute of Employment Development